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제주 국제학교 졸업생의
해외 대학 유학 생활 경험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心理治療學科

高 銑 志

2019年 6月

제주 국제학교 졸업생의
해외 대학 유학 생활 경험




指導交綏 金 民 浩

高 銑 志

이 논문을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年 6月

고선지의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u>동재홍</u>	
위 원	<u>서명석</u>	
위 원	<u>김민호</u>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19年 6月



The overseas university educational and life
experiences of Jeju Global Education City
international school graduates

Seonji Ko

(Supervised by professor Min Ho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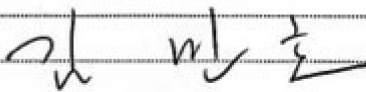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Education
[Master of Psychotherapy]

2019. 6.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Min Ho Kim

Thesis director, Min Ho Kim Prof. of Psychotherapy



(Name and signature)

June, 2019

Date

Department of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문제	5
II. 이론적 배경	6
1. 언어 및 학업적응	7
2.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 접근	9
3. 자기관리 역량	12
4. 제주국제학교의 성격	15
III. 연구방법	21
1. 연구 참여자	21
2. 자료 수집	22
3. 자료 분석	25
IV. 연구 결과	27
1. 유학 이전 국제학교 재학 당시의 생활	27
1) 학교생활	27
2) 가정생활	37
2. 유학 생활 경험	44
1) 학업경험	46
2) 문화적응 경험	56
3) 일상생활 경험	61
3. 유학 생활에 대한 공유된 의미	67
1) 높은 성취 기대감에 따른 좌절 넘어서기	67

2) 부여된 자율성만큼 반가운 책임감	71
3)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 찾아가는 과정	73
V. 논의 및 결론	76
1. 논의	76
2. 결론	79
참고문헌	83
Abstract	91
부 록	92

표 목 차

<표Ⅱ-1> 외국인 유학생들의 어려움	6
<표Ⅱ-2> K-CESA 자기관리역량의 세부 하위 영역	14
<표Ⅱ-3>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의 개념 및 법적 근거	15
<표Ⅱ-4> 국내에 설립된 외국어 전용 교육 기관	16
<표Ⅱ-5>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현황	17
<표Ⅲ-1> 연구 참여자 정보	21
<표Ⅲ-2> 심층면담 질의 문항	23
<표Ⅳ-1> 의미 있는 진술, 이와 관련하여 명확히 나타난 의미의 예	44
<표Ⅳ-2> 명확히 나타난 의미와 관련된 두 가지 주제군의 예	45
<표Ⅳ-3> 연구 결과의 범주 및 주제	45

그림 목 차

[그림Ⅱ-1] 심리적 문화적응 3단계	10
----------------------------	----

국문 초록

제주 국제학교 졸업생의 해외 대학 유학 생활 경험

고 선 지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전공

지도교수 김 민 호

이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 영어교육도시내의 국제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대학 진학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며 유학 생활 중 자신의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대학 생활 준비를 위한 필요한 지원 또는 국제학교 현장에서의 진로 상담적 함의를 찾아보았다. 연구문제는 제주 국제학교 졸업생의 제주 국제학교 졸업생의 재학 당시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은 어떠했는지 맥락 알아보기, 해외 대학 유학 생활 경험 살펴보기, 마지막으로 제주 국제학교 졸업생은 자신의 해외 대학 유학 생활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삼았다. 학생들이 국제학교 재학 경험과 대학 생활 경험에 공통적으로 부여하는 의미를 찾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 중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했다.

연구 대상자는 총 8명으로 연구 대상자와 1:1 면담과 그룹 인터뷰를 거쳐 자료를 수집하고 면담 내용을 모두 문서 형태로 전사한 뒤 관찰노트, 문헌정보 등을 함께 사용하여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제주 국제학교 졸업생이 해외 대학 유학 생활에 부여하는 의미는 높은 성취 기대감에 따른 좌절 넘어서기, 부여된 자율성만큼 반가운 책임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 찾아가는 과정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국제학교 현장에서의 진로 상담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국제학교의 고등교육 과정을 시작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 그리고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의 지역 등을 고려한 수강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둘째, 진로 상담 과정과 대학 생활 준비 과정에서 학생들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상담을 제공함과 동시에 대학 입학만을 위한 진로 상담이 아닌 대학 이후 생활을 위한 상담적 고려도 필요하다. 셋째, 대학 입시 지원 과정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상위 랭킹의 대학교로의 진학이 아닌 학생의 적성이며 성향임을 상기하고 싶다.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제주 국제학교 2곳의 8명의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삼아 연구 참여자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또한 심층 면담을 주요 연구 자료 수집 방안으로 삼았으나 기초면접 1회, 심층면담 2~3회로 보다 깊은 면담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한계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제주 국제학교 졸업생의 과거 국제학교 경험과 현재의 해외 대학 유학 생활 경험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대학 생활 이후에 대한 관찰이 부족하다. 유학 생활 중 향후 진로탐색과정, 대학교를 졸업한 후 학생들의 직업이나 진로와 같은 교육 경험 결과와 관련된 연구를 추가로 진행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으리라 본다.

주제어: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졸업생, 해외유학생, 대학생활경험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의 흐름을 살펴보면 곳곳에 세계화, 국제화, 개방화와 국가 간 같은 장벽을 허무는 추세가 강하다.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화 된 세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외국어, 특히 세계 공용어로 사용되는 영어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소위 주입식 교육, 입시 교육이라는 악명을 얻고 있는 일반 학교에서 보다 나은 기회를 얻기 위해 많은 학생들과 가족들이 해외 국가로 조기 유학을 선택하고 있으며 조기 유학으로 인한 기러기 부모 문제, 외화 유출 문제 등을 막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에는 영어교육도시가 계획되었다. 영어교육도시에는 현재 국제학교 4개교가 개교하여 국제학교들이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으며, 추후 민간자본을 바탕으로 한 국제학교와 대학의 부설 캠퍼스를 유치할 목표로 장기 계획이 세워져 있다.

국제학교에서는 국내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교육 수요자에 대한 대안적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신혜진, 2018) 모든 교과 과정이 미국과 외국의 명문대 진학이 가능한 사립학교 수준으로 제공되며 북미 표준에 근거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윤정일, 2006). 국제학교는 해외로 유학을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의 유대를 유지하면서도 해외의 글로벌 문화 자본을 제공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임정미, 2017) 국내와 해외의 학력을 동시에 인증 받는 것이 가능해 대학 진학 선택 폭이 다양해진다는 장점이 있다(김태경, 2016).

국제학교 입학 을 위해서는 서류전형 단계에서는 이전 재학 학교의 성적이나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심사하게 되며 그 외에 국제학교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입학 시험 결과와 외국어 공인 시험 성적 등이 필요할 수 있다. 국제학교에서는 수업이나 생활 자체를 모두 영어를 공용어로 삼아 사용하기 때문에 일상 회화 수준 이상의 높은 영어 실력도 당연히 필요하다. 이로 인해 면접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연간 수천만 원이 넘는 학비를 납부 해야하고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제주로 이주해서 함께 지내거나 별도로 높은 기숙사 비용을 지불하고 부모와 떨어져서 지내야 한다. 국제학교의 교육비는 연간 최소 3~4천만 원으로 한국 대학 등록금의 수배에 이르며 상당한 경제력이 있는 부모만이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낼 수 있다 보니 일반인들은 국제학교를 ‘귀족학교’라고 부르기도 한다(임정미, 2017).

국제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한국국적의 내국인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교육받고 생활하는 환경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와 같은 환경인 독특한 환경에 노출되어 생활하고 있다 보니 국제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 가운데 부적응을 경험하는 사례가 상당 수 존재하고 있다(Kim, 2006).

지금까지의 국내의 국제학교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국제학교 재학생에 관한 연구, 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와 관련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국제학교 재학생에 관련한 연구에는 이문화수용 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를 다룬 다수의 연구를 찾아 볼 수 있다. 신체화 증상에 초점을 맞춘 국제학교 학생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윤수정, 2009),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증상 요인간에 높은 수준의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학생의 높은 사회적지지 지각은 상대적으로 낮은 심리적 부적응 증상을 보이는 연관성을 발견했다(채송희, 2008). 윤초희, 한수연의 연구(2015)에서는 국제학교 학생의 자아 존중감, 학교적응 및 부모의 진로지지가 진로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생들의 유학 선택 동기와 상관없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평가가 진로정체성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자발적으로 유학을 결정한 학생의 경우 부모의 언어적 격려가 조력보다는 간섭이나 통제로 지각되고 학생들의 진로정체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했다. 서나래(2014)의 연구에서는 국제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화교의 문화 혼종성 교육 경험과 정체성 형성에 대하여 다루었으며 제3문화아이드(TCK, the Third

Culture Kids)¹⁾의 개념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귀국 학생들의 국내 일반 학교 적응과 관련한 연구(김미경, 1999; 김선경, 2003; 이영선, 이동훈, 2009; 김기호, 2014)도 TCK와 관련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국제학교에 자녀가 재학 중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삼은 소수의 연구도 찾아볼 수 있는데 임정미(2017)의 연구에서는 학부모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제학교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의 전략과 한국에서의 국제학교가 가지는 문화 자본적 측면의 사회적 현상의 특징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가족의 코즈모폴리탄²⁾ 경험은 자녀의 국제학교 진학에 큰 영향을 미쳤고 둘째, 국제학교는 조기유학의 대안으로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었다. 셋째, 국제학교의 IBDP와 같은 수업방식과 인증제도가 조기유학 대신 국제학교 진학을 대안으로 선택하는 큰 유인책으로 작용하며 넷째, 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들은 한국의 공교육 및 사교육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수의 학부모들이 또다시 과외와 학원을 선택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혜진(2018)은 국제학교 학부모들의 영어 교육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그들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으며 학부모의 영어 교육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인 현상학적 연구를 시도 했다. 국제학교 학부모들은 국제학교 선택과정에서는 현행 교육제도에 대한 불만과 여전히 계속 되는 주입식 수업 방식에 대한 염려, 자녀의 영어 교육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존재 했으며 공립학교들이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학부모의 영어 교육 욕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국제학교를 선택한 이유에는 새롭고 창의적이며 행복한 교육에 대한 강한 기대가 있었고 경제적 부담과 국제학교 재직 교사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밝혔다.

국제학교를 제외하고 해외 대학 유학 생활을 연구 주제로 삼은 관련 선행 연구도 국내외로 다수가 존재한다. 백일민(2011)은 연구를 통해 미국 내 대학에 대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 108명을 대상으로 삼아 영어 자신감, 정서조절곤란, 문화변용 스트레스, 문화 간 역량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살

1) 1950년대 미국 인류학자 루스 힐 우심이 만들어낸 용어로 '부모와 함께 다른 문화권에서 자란 아이'를 의미함.

2) '세계주의' 또는 '세계시민주의'라고도 하며 인류 전체를 하나의 세계 시민으로 보는 입장을 말함.

펴보았는데 그 결과, 비자발적으로 유학을 결정한 유학생은 자발적으로 유학을 결정한 유학생에 비해 더 높은 문화 변용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대학생이 대학원생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서조절 곤란과 문화 변용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하위 요인이 적응지표에 대해 어떤 효과를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 연구에서는 학업 스트레스 유발 요인인 성공적 목표 설정의 실패, 경쟁, 학업 기한, 책임감 등과 유학생들이 학업을 수행하려는 의지간의 마찰이 나타난 결과 정서 소진이 나타난다고 판단했다(김경숙, 2012).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학생들의 학문적 압박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 내 대학의 학업 프로그램들은 자국의 미국 학생들을 기준으로 환경이 제공되기 때문에 유학생들을 위한 언어지원이나 언어로 인한 마감 시간 연장, 문화적 갈등에 대한 상담적 지원 등이 부족해 사회적, 학문적 자원과 기술이 부족한 유학생들은 취약하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Koyama, C., 2005)

기존의 해외 유학생과 관련된 연구의 대부분은 일반계 고교를 졸업하고 해외로 유학을 간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연구가 진행되어 국제학교라는 특수한 상황에 초점을 둔 연구는 전무하다. 또한 국제학교의 상황을 고려한 연구들도 국제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학부모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연구들로 한정되어 직접적으로 국제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을 심층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 사례는 없으며 해외 대학 진학 후 유학 생활에 대하여 알아본 연구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연구자는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한 국제학교에서 4년 동안 교장실 및 카운슬링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국제학교에서 맡았던 업무 내용으로는 학생의 성적 관리 및 출결 관리, 대학 입시 서류 및 프로그램 관리, 상담 프로그램 관리 등이 있으며 가장 중요한 업무는 학생-학교-학부모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것이었다. 기숙사를 제외하고 학교에 주간 시간에 배치되어 있는 카운슬러는 대부분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원어민 교사이다 보니 학생이나 학부모가 상담교사와 상담 시 감정적인 부분이나 세세한 내용을 설명하기 어려워하는 경우, 상담에 함께 참여하여 학생과 교사와의 대화를 원활하게 도와주는 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였다. 그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 할 수 있었

으며 자연스레 국제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성공적으로 대학 진학 한 후 일반계 고교 졸업생들과 달리 어떠한 삶을 살고 있으며 현재의 유학 생활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 졸업생이 부여하는 해외 대학 유학 생활의 의미를 알아본다면 현재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진로 상담 및 대학 진학 준비를 위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연구의 목적은 국제학교 졸업생이 해외 대학 유학 생활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경험이 국제학교 재학 당시의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국제 학교 졸업생이 자신의 해외 대학 유학 생활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2. 연구문제

이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제주도 영어교육도시내의 국제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대학 진학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며 유학 생활 중 자신의 경험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자세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제주 국제학교 졸업생의 재학 당시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은 어떠했는가?
2. 제주 국제학교 졸업생은 해외 대학 유학 생활 중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
3. 제주 국제학교 졸업생은 자신의 해외 대학 유학 생활 경험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적응(adjustment)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이 일정한 조건이나 환경에 맞추어 잘 어울리거나 알맞게 변하는 것을 말하며, 심리학적인 측면에서의 적응은 주변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각 개인의 투쟁을 의미한다(박미숙, 2010). 황해연(2007)은 인간의 적응에 대한 개념을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고, 어떤 스트레스 하에서도 자신의 다양한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매일의 일을 관리하는 능력에 대한 개념으로 정의 했다.

대학생활 적응은 개인이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된 다차원적인 현상으로, 다양한 종류의 요구들이 뒤따르는 학업적, 사회적, 정서적 적응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Zou Zhendong, 2009). 또한 Coffman & Gilligan(2002)은 대학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은 개인이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면서 상황의 변화와 새로운 인간관계 등과 같은 다양한 원인으로 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으로 보았다.

<표 II-1> 외국인 유학생들의 어려움(Tom & Norsworthy, 1997)

구분	내용
개인 수준	향수병, 음식문제, 언어문제, 의료서비스, 집을 구하는일, 새로운 집을 구하는 일, 새로운 집에 적응하는 일, 미래의 직업에 대한 계획
경제적 수준	경제적 문제
사회적인 관계	우정을 발전시키는 일, 매일 매일의 문제, 이성과의 사회적인 관계
제도적 관습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관습을 지속하는 일, 새로운 관습
인종차별	그 사회의 폭력, 인종 차별의 불편들
교육체계	교육 체제의 적응

외국인 대학과정 유학생들의 적응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Tom과 Norsworthy(1997)는 개인 수준, 사회적 관계, 제도적인 관습, 교육 체계, 종교, 인종차별, 경제적 수준 등이 있다고 구분했는데 이를 항목별로 정리하면 <표Ⅱ-1>와 같다(이유경, 2014에서 재인용). <표Ⅱ-1> 내용과 같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적응과정을 통해 다양한 장애물을 넘어서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들을 위한 적극적인 상담적·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1. 언어 및 학업 적응

기본적인 언어의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이는 자연적으로 학업적 어려움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수업을 매개하는 가장 기본적인 소통의 도구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대학에서의 학습활동은 일반적으로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사소통능력은 필수적이며 일정 수준의 수업매개어 구사력뿐만 아니라 이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은 학습 활동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주희정, 2010). Dillon 외(1997)는 유학생들이 느끼는 해외 유학 생활 중의 자신감 부족 현상은 언어 능력의 부족에서 올 수 있으며 학생 자신의 외국어 실력에 따라 유학 경험의 질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현재 한국에서 수학중인 해외 유학생들에게서도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대학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최은지 외, 2007; 이용석, 2008), Fritz Marie 외(2008)는 연구를 통해 유럽이나 북미권의 학생들에게서 보다 아시아계 학생들에게서 언어적 적응의 어려움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학생들에게서 발견되는 스트레스 요인은 언어적 적응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학문적 스트레스와 압박에 기인한다고 보는 연구도 있다. Koyama, C.(2005)는 연구를 통해 과도한 경쟁, 제출 기한에 대한 압박, 학업적 책임감, 과도한 학업량, 자원의 부족, 설정한 목표 달성 실패, 미국 학생들과 사회로부터 소외와 같은 학문적 압박이 유학생에게 스트레스를 주며 과도한 알코올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

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그리고 해외에서 공부를 하다 귀국한 학생들의 사회로의 적응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한 범주들이 다른 범주에 비해 다양하게 구분했으며 사례도 많이 포함되어 학생들이 경험하는 적응문제 중 가장 힘들어하는 범주임을 확인시켜 주기도 했다(이영선, 이동훈, 2009). 이처럼 학업적 적응은 유학생들에게 있어 넘어야 할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권귀영(2017)은 유학생들의 타국 유학의 가장 큰 이유는 학업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학업적응이야말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정의하면서 개인이 느끼는 학업 수준이나 학습의욕, 수업에 대한 만족도 등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인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 학업 적응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국내의 고등학교 교육을 떠올리면 주입식 교육, 성적 위주의 교육을 떠올리게 된다. 실제로 국제학교 진학을 선택한 학생과 학부모의 경우에도 높은 비용과 제주 이주를 고려하면서 까지 국제학교를 선택하게 된 이유로 일반계 고교의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에 대한 불만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도 한다(신혜진, 2018).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쌍방향 교환을 통한 수업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많은 해외 유학생들은 해외 대학 진학 후 수업 방식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 유학 과정에서 수업은 단순히 수업을 진행하는 언어만이 바뀐 것이 아니라 수업 진행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 수업방식은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바뀔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교수와 동료학생과의 관계를 비롯하여 리서치방법, 글쓰기, 토론, 발표방식등과 같은 차이도 이에 포함할 수 있다(주희정, 2010). 이러한 이유로 일선의 교육 현장에서는 고등교육과정과 대학교육 과정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과 학생들의 학업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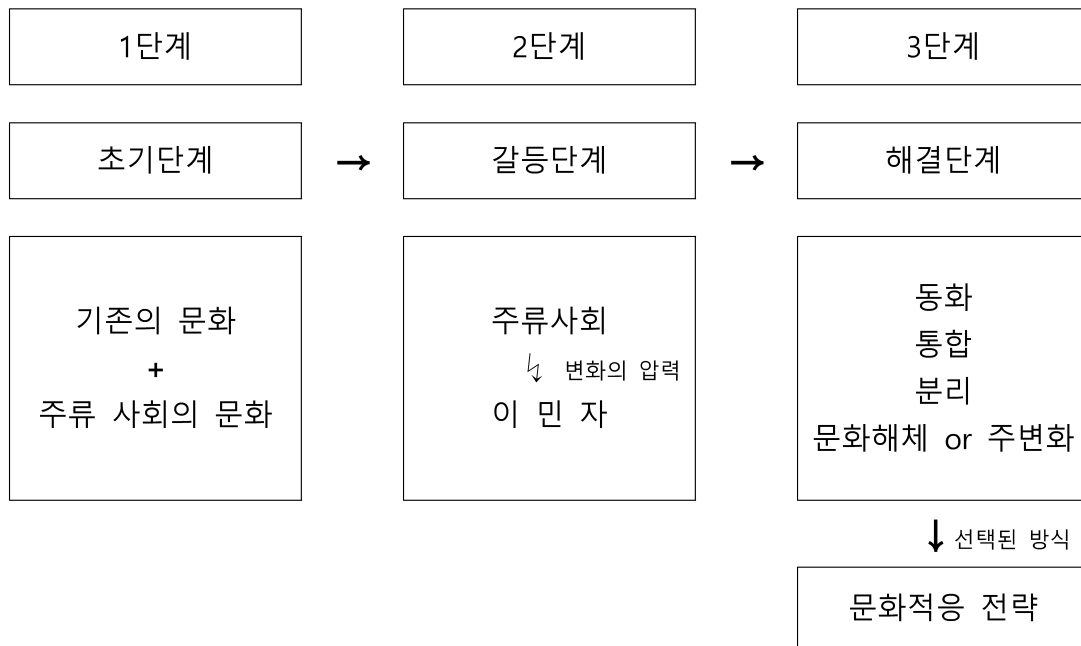
황규호(2018)는 고등교육과정과 대학교육과정의 연계를 위한 고등 교육과정 개선 방안을 논하는 과정에서 대학별로 전공교육에 필요한 선수과목들을 제시하여 이를 고등학교 교육을 통해 충실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대학 차원에서도 고등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실태를 바탕으로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제도(UP)의 활성화 방안이나 보충과목 개설 방안 등 교육과정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 접근

Berry(1997)는 문화 적응은 한 개인이 이주 등으로 속해있던 기존 문화를 떠나 낯선 사회에 정착하는 경험으로 인하여, 특정 문화적 맥락에 익숙해진 개인이 새로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는지 보여주는 문화적 변화과정으로 보았다. 또한 문화 적응은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 노출되거나 적응해야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문화 간 접촉의 결과로 사회문화적이고 심리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현상이다(이유경, 2014).

문화 적응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주로 이민자의 정신 건강 즉, 문화 적응의 정서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졌다(김현숙, 김희재, 2014). 문화적응에 관한 대표적 학자인 Oberg(1960)는 문화 충격(culture shock)이론을 통해 문화 적응의 정서적 측면을 강조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주자들이 타문화에 머물게 되면서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을 4 단계로 나누어 설명했다. 첫 번째는 허니문단계로, 새로운 문화와 만나서 감탄, 황홀, 열정을 느끼는 시기이며, 두 번째 단계는 위기 단계로 불안, 분노, 좌절, 부적절함 등을 느끼는 단계이다. 세 번째는 회복 단계로 위기를 해결하고 문화를 배워나가는 시기이며, 마지막은 적응 단계로 새로운 환경을 즐기고 기능적으로도 유능해지는 단계로 보았다.

Berry(1997)는 심리적 문화적응에 대해서 3단계인 접촉단계, 갈등단계, 해결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했는데 제 1단계는 초기단계인 접촉단계로서 서로 다른 2개의 문화가 만나는 단계이며, 제 2단계는 갈등단계로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주류 사회가 이민자에게 변화의 압력을 가하는 단계로 이민자들은 정체성의 혼미를 경험할 수 있다. 제 3단계는 해결단계로서 문화적응의 4가지 유형 즉, 동화(assimilation), 통합(integration), 분리(separation), 문화 해체(deculturation) 또는 주변화(marginalization)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해결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선택된 방식을 ‘문화적응 전략(acculturation strategies)’이라고 칭했다.



[그림 II - 1] 심리적 문화 적응 3단계 (Berry, 1997)

Berry 외 3인(2006)은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 개념을 제안했는데 문화 간 접촉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생활사건(life events)에 대한 반응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요소 만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적응의 면까지 포함된 전반적인 적응 양상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문화 적응 문제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이론을 살펴보면 문화 적응의 정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스트레스 대처 접근, 적응의 행동적 측면에 초점을 둔 문화학습이론, 인지적 측면을 강조한 사회정체성이론을 들 수 있다.

이 중 스트레스 대처 접근은 문화적 이동을 스트레스적인 생활사건으로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적응적 자원과 대처 반응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론(정진경, 양계민, 2004)으로 문화 적응의 정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이론으로 볼 수 있다. 이주 과정에서 경험한 생활 사건의 의미,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이민자나 체류자의 인지적 평가, 그리고 변화를 다루는 대처전략의 선택과 수행에 초점을 둔다.

Lazarus(1976)는 이주한 곳에서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는 두 가

지 차원의 과정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먼저 일차적인 대처는 주어진 환경에 자신을 변화시켜 맞추는 과정이며 이차적인 대처는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 개인이 단순히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는 것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으로 행하는 다양한 활동과 환경과의 상호작용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민자들은 새로운 환경과 욕구 충족에서 비롯된 다양한 스트레스원에 과다하게 노출되는데, 해당 상황에 잘 적응하지 못할 때 문화 부적응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김현숙, 김희재, 2014).

기존의 문화 적응 및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관련된 선행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 적응 과정은 일반적으로 해외 유학생의 스트레스나 불안 정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해외 유학생의 수가 해당 지역의 하위 그룹으로 분리 될 경우 더 큰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밝혀졌다(Fritz Marie 외, 2008). Poyrazli, S(2004)는 연구를 통해 미국 대학의 해외 유학생들에게 문화 적응 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 피츠버그 지역의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서도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정신 건강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신체화 증상에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Jee-Sook Lee 외, 2004). 이와는 비슷한 내용으로 멕시코계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 한 연구에서는 문화 적응 스트레스는 불안과 우울증상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으며 회피적인 대처를 할 경우 우울과 불안이 더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Crockett 외, 2007).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해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유학생들이 겪는 적응의 어려움은 그들이 학위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어렵게 되고, 이로 인해서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겪는 외국인유학생일수록 학업적 적응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확인했다(주동범, 김향화, 2013). 문화적 적응 문제가 단순히 문화에만 국한 될 뿐만 아니라 학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 연구로 볼 수 있다.

문화 적응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또 다른 개념으로는 문화 간 감수성을 들 수 있다. 먼저 문화 간 감수성은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여러 문화들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평가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정서적인 반응

과 욕구를 일컬으며 다른 문화 간의 교류에 대한 태도로 상호작용에의 참여, 다른 문화와의 공감과 개방성을 나타내는 문화 간 차이존중, 다른 문화 간의 상호작용 능력을 나타내는 상호작용의 유능감, 문화 간 상호작용 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의 정도를 나타내는 상호작용의 태도 등을 구성요인으로 한다(강종훈, 2015). Bhawuk과 Brislin(1992)는 해외 유학생들이 타 국가로 이주하고 적응하는 과정과 같은 타 문화 집단과 어울려 지내기 위해 문화 적응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타문화에 대한 흥미, 타문화가 가진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는 민감성, 그리고 타문화를 존중하는 태도의 변화를 들었으며 다른 문화권 사람들의 문화적 차이와 시각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문화간 감수성이라 칭했다. 그리고 타문화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적절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문화 간 역량(intercultural competence)으로 정의했다.

3. 자기 관리 역량

자기 관리는 자신이 어떤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기술이나 전략들을 사용해 변화를 주도하는 과정이고, 철저한 자기관리는 자신의 의도와 목표를 일치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Manz & Sims, 1980). 허정훈(2001)은 자기관리는 심리학적 개념에 근거하여 자신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을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는데, 자기 관리와 비슷한 뜻으로 자주 활용되는 자기생활관리는 개인이 목표행동과 관련된 선행사건 및 후속사건을 스스로 조정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거나 유지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정미, 2006). 또한 자기관리는 OECD의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OECD, 2005)에서 제시한 21세기 핵심역량 중 하나로 꼽힌 바 있는데 자기관리능력에 관한 국내, 외 학자의 견해를 살펴보면 자기관리, 자기통제, 자기조절이라는 용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서로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며, 각 연구에서 임의로 적합한 용어로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다(손경숙, 2016).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대학교에 진학하며 자율적 관리가 줄어드는 자율적

관리를 시작한다. 이로 인한 시간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높아지는데, 우희순, 최유임(2018)은 현대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기술 중 하나로 시간관리기술이 있다고 보았고 인간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보았다.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는 개인의 성취 및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원희(2000)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동안의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과 자신을 조정하고 활동관리와 생활관리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인간의 인지적인 자기관리전략의 일종이라고 정의 했다.

이성 외 6인의 연구(2011)에 따르면 대학생의 자기관리는 학교생활과 관련이 깊으며 대학 교육의 효과나 취업진로 와도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 취업이나 진로를 위해서 목표 설정이나 설정된 목표의 실행력, 목표 달성을 위한 학습 전략, 목표를 구체화 시키고 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간관리, 이런 요소들 아우르는 정서조절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을 자기 관리 영역에 포함할 수 있다. 즉, 대학생들의 자기관리는 보람찬 대학생활을 위한 목표관리, 시간관리, 학습전략, 스트레스 관리 등이 해당될 수 있다(권순철, 2014에서 재인용).

자기 관리를 개인의 능력으로서 바라보는 개념인 자기관리역량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개인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감시하는 등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이경희, 강경리, 2017)이다. 진미석 외(2007)는 자기 관리 역량을 자가 평가를 실천하고 목표를 이뤄내는 과정을 조망하며 자신을 조절하는 자신의 면모를 관리하는 능력이며, 능률적인 학습이 될 수 있게끔 시·공간을 조정하고 불안 및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기술로 정의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2)은 대학생들의 핵심역량 수준을 파악하여 진로개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주도하에 한국교육평가학회와 다수의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진단 도구 K-CESA를 제시했다. 의사소통 역량, 대인관계 역량, 글로벌 역량 등 6부문의 역량을 평가하는 진단 도구로서 이를 통해 살펴본 자기관리 역량의 정의 및 구성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Ⅱ-2>와 같다.

<표 II -2> K-CESA 자기관리 역량의 세부 하위 영역

요인	정의	구성요인
자기 주도 학습 능력	학습자 스스로 학습동기를 고양시키고 학습과정 및 전략을 결정하여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능력	동기조절
		인지전략
		행동조절
계획 수립 및 실행 능력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기 위해 자기 자신과 자원을 관리 활용하는 능력	목표분석력
		계획수립력
		계획실행력
정서적 자기조절 능력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을 조절하여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스트레스 대처
		감정 및 기분 조절
직업의식	자신이 속한 직장이나 조직에서 권리와 책임을 알고 직업윤리에 맞추어 행동하는 능력	직장동료 돕기
		직업윤리
		자발적 참여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2)

김서현(2018)은 자기관리역량을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감정 및 충동, 스트레스를 조절하며 주변 환경을 조정할 수 있는 힘 내지 개인의 특성으로 정의하면서 자기 관리 역량의 구성요인 제시했다. 학습자가 개인적 목표, 혹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름의 효과적인 전략과 기술을 사용하여 계획하고 실천해내는 능력인 목표 설정 및 실천 능력, 개인이 상황과 목적에 맞게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증진시키거나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인지적, 행동적 수준에서 자신의 정서를 알아차리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인 정서조절능력,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목표 달성을 위해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인 주변환경능력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4. 제주 국제학교의 성격

1) 법·제도 차원의 국제학교

우리나라의 많은 학교들이 국제학교(international school)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용어가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학교 또는 국제학교

<표Ⅱ-3>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의 개념 및 법적 근거

	외국인학교 (외국인유치원포함)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
관련법	제60조2 『유아교육법』 제16조	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설립 목적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 교육 외국에서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에 대한 교육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 여건 향상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의 생활여건 개선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
설립 가능 지역	전국	경제자유구역(인천, 광양만, 부산·진해,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6곳) 제주특별자치도 기업도시(원주, 충주, 무안, 태안, 무주, 영암·해남 6곳)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평택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 공여구역주변지역	특별법이 규정한 특정 지역(현재는 제주 특별자치도 영어 교육 도시 내)
교육 대상 학교급	유·초·중·고교(국내 학교법인은 초·중·고교)	유·초·중·고교, 대학	유·초·중·고교
명칭	‘○○외국인학교’ 또는 ‘○○국제학교’, ‘○○화교학교’	‘○○국제학교’ 또는 ‘○○학교 한 국분교’	‘○○국제학교’, ‘○○jeju’

출처: 유의정·이덕난,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주요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2, 6~7면

등으로 알려져 있는 외국어 전용 교육기관은 근거 및 설립목적 등에 따라 <표Ⅱ-3>과 같이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로 각각 분류할 수 있다(이덕난, 유의정, 김만겸, 2014).

2018년 기준으로 국내에 설립된 외국어 전용 교육기관은 이덕난, 유의정, 김만겸(2014)의 연구를 통해 확인한 <표Ⅱ-3>를 기준으로 제주 국제학교 추가 개교를 포함하여 수정한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학교는 50개교이고, 외국교육기관은 2개교, 국제학교는 4개교이다.

<표Ⅱ-4> 국내에 설립된 외국어 전용 교육 기관

연번	구분	지역	교육기관의 명칭	설립(운영)자	국내학력인정
1-50	외국인 학교 전체 합계	-	-	외국인(46개교) 비영리외국법인(1개교) 학교법인(1개교), 미운영(2개교)	X
1	외국 교육기관	인천	송도채드워국제학교	외국학교법인	O
2		대구	대구국제학교	외국학교법인	O
1	국제학교	제주	KIS Jeju	교육감설립(민간위탁운영)	O
2			NLCS Jeju	영리법인	O
3			Branksome Hall Asia	영리법인	O
4			St. Johnsbury Academy Jeju	영리법인	O

2) 제주지역 국제학교의 교육 환경

제주지역의 국제학교는 서귀포시 대정읍의 영어교육도시에 위치해 있다. 영어교육도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2019년 4월 기준 영국학제를 따르는 N교, 캐나다 학제를 따르는 B교, 미국 학제를 따르는 K교 및 S교 등 4개의 학교가 개교하여 운영 중에 있다. 2000년대 이후 조기유학 급증으로 인한 외화 손실, 귀국 후 부적응 문제 및 기러기 아빠와

같은 가정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고자 추진된 사업으로 세계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조기 유학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고 동북아시아 교육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내의 국제학교 현황은 <표Ⅱ-5>과 같다.

<표Ⅱ-5>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현황

교육기관명	대상학년	고등 교육과정	형 태	학생 정원(명)	개교일
한국국제학교 (Korea International School Jeju)	유치부 ~7학년	-	남녀공학, Day&Boarding School	782	2011.09.19
	8학년 ~12학년	AP	남녀공학, Day&Boarding School	480	2013.08.19
노스런던 컬리지에이트스쿨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유치부 ~13학년	IGCSE IBDP	남녀공학, Day&Boarding School	1,508	2011.09.26
브랭섬홀아시아 (Branksomehall Asia)	유아부 ~12학년	IBDP	여학교, Day&Boarding School	1,212	2012.10.15
세인트 존스버리 아카데미 (Saint Johnsbury Academy Jeju)	유치부 ~12학년	AP	남녀공학, Day&Boarding School	1,254	2017.10.2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http://www.jje.go.kr/>)

조기 유학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계획된 학교인 만큼 모든 학교가 기숙사를 갖추고 있으며 초등 저학년을 제외하고 상당수의 학생들이 부모와 떨어져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다. 학년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기숙학생의 비율은 높아지는 편이며 통학 학생들은 소수의 제주 출신 학생이거나 영어교육도시 근방에서 홈스테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으며 부모 또는 가족이 제주로 함께 이주해 생활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학교 또는 외국인학교로 칭해지는 교육기관은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 교육을 받는 공간이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내의 국제학교들은 다른 입학 조건 제약이 있는 인천, 부산 등과 같은

타 지역의 외국어 전용 교육기관과 달리 국적, 해외 체류 기간과 같은 제약이 없어 대부분의 학생 분포가 내국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소수의 외국인들이 함께 수학하고 있다.

3) 교육과정 운영차원의 국제학교

교육과정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 교육관 등의 차이로 인해 국가별, 지역별로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흐름을 바라보면 교육 과정의 세계 통용성을 통해 전 세계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 인류의 보편적 지식, 가치, 행동 양식을 추구하고 있다(김경희, 2016). 세계화 시대에는 자국 안의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세계 수준의 교육과정을 연구 개발 제공하는 나라가 보다 성공적인 교육을 통해 국가 발전을 기할 수 있다(강익수 외, 2006).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교육 과정으로는 이 연구의 참여자들이 제주 영어교육도시내의 국제학교를 다니는 동안 고등과정에서 이수한 미국학제 중심의 AP(Advanced Placement, College Board),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발전한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과정 외에도 A-levels, AICE(Cambridge International Examinations Advanced Certified of International education), IGCSE(International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등이 있는데 이 중 AP(대학과목선 이수제)와 IBDP(국제공동대학입학자격제도)는 대학 진학을 앞둔 우수 고교생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우수한 학업성적 지표로 인정받고 있다(강익수 외, 2006). 제주지역의 국제학교들은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학제를 인정하고 있는 세계적 경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대입 준비를 위해 2019년 5월 현재 개교되어 있는 총 4개교 중에서 2개교에서는 고등 교육 과정에 IBDP, 나머지 2개교에서는 AP 과정을 도입하여 따르고 있다.

(1) AP(대학과목선 이수제)

AP는 Advanced Placement의 약자로 대학과목선 이수제이다. 미국의 AP프로그램은 미국의 대학 입학 자격시험인 SAT(Scholastic Aptitude Test)를 운영 하는 비영리교육기관인 대학위원회 College Board에서 주관하며 1955년에 시작됐다

(<http://apcentral.collegeboard.com/>). AP는 미국의 고교에서 대학의 교양과정에 해당하는 교과목의 강좌를 미리 수강하여 대학 학점을 고교 과정 중에 이수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과정이다. 이는 1950년대 미국 고교에서는 우수한 고교생들의 학문적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고등학교 재학 중 대학 수준의 AP 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을 받는다. 우수한 학생들은 고교에서 대학 수준의 교과목 수강의 기회를 갖게 되고 고등학교와 대학 간의 교육 과정 연계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College Board, 2014). 또한 학점별로 학비가 책정되는 경우가 많은 해외 대학에서 대학 과목을 고등학교 과정 중에 선이수하면서 미리 이수한 학점만큼 학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2) IBDP(국제공동대학입학자격제도)

IB는 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me의 약자로 국제공동대학 입학자격제도를 말한다. 먼저 IB는 초등 과정(Primary Years Programme, PYP), 중등 과정(Middle Years Programme, MYP), 직업 준비 과정(Career-related Programme, CP), 고교 졸업 인증 과정(Diploma Programme, DP)으로 이루어져 있다.

IB의 고교 졸업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수·선택 과목 이수와 과목별 시험통과, 통합 교육과정인 지식론(Theory of Knowledge, TOK)과 논술(Extended Essay, EE), 창의성·신체활동·봉사활동(Creativity, Action, Service, CAS)의 이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6개 교과목 군에서 각 한 과목씩 총 6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6개 교과목군은 제1언어(모국어), 제2언어(외국어), 개인과 사회, 과학, 수학과 컴퓨터과학, 예술이다. 둘째, 통합 교육과정인 지식론과 논술과제 및 과외활동 등 세 개의 핵심 필수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지식론(TOK)은 학생들이 지식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고 이를 프로그램의 다른 교과목을 배우는 데에 접목시키는 통합교과적 성격을 지닌다.

논술(EE)은 학생들이 직접 고른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40시간 이상 시간을 들여 조사하고 4,000자 이내의 장편 논술을 작성해야 하는데, 대학에서 요구하는 자주적인 연구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창의성·신체활동·봉사 활동(CAS)

은 예술적, 신체적, 그리고 봉사 활동을 통하여 전인적 인간을 양성을 도모한다. 지도교사의 도움을 받아 2년간 매주 3-4시간씩 최소 150시간의 활동을 해야 한다. 창의성(Creativity)은 오케스트라 활동, 작문 클럽 활동, 신문 제작 활동 등의 활동을, 신체활동(Action)은 야구, 농구, 축구와 같은 체육 활동을, 봉사활동(Service)은 학생회 활동, 스카웃 활동, 기타 봉사 활동 등을 포함한다(김경희, 2016).

Ⅲ.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이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우연적 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영 어교육도시내에 위치한 국제학교 중 2개교를 졸업한 졸업생 8명(여학생 5명, 남 학생 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를 선택할 때 연구될 현상을 경험하였고 자신들의 생생한 경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개인들로 선정해야 한다(Creswell, 2010). 이와 같은 이유로 연구자는 연구 참

<표Ⅲ-1> 연구 참여자 정보

연 번	참여자	연령 (만)	성 별	출신학교명 (교육과정)	국제학교 선택동기	국제학교 재학기간	대학교 지역	대학교 재학기간
1	A	22세	남	KIS(AP)	본인선택	5년 이상	아시아	5학기 이상
2	B	21세	여	KIS(AP)	부모권유	5년 이상	아시아	5학기 이상
3	C	21세	여	BHA(IBDP)	본인선택 및 부모권유	5년 이상	북미	2학기 이상
4	D	20세	남	KIS(AP)	부모권유	4년 이상	북미	2학기 이상
5	E	20세	남	KIS(AP)	부모권유	5년 이상	아시아	4학기 이상
6	F	22세	여	BHA(IBDP)	부모권유	4년 이상	북미	8학기 이상
7	G	21세	여	KIS(AP)	본인선택 및 부모권유	5년 이상	북미	5학기 이상
8	H	21세	여	BHA(IBDP)	부모권유	4년 이상	북미	4학기 이상

여자의 선정 시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 1) 제주도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 졸업생으로 국제학교 재학 기간 3년 이상,
 - 2) 해외 대학교 진학 후 적어도 2학기 이상 재학,
 - 3) 국제학교 재학 기간 중 AP 또는 IBDP 등을 통해 대학 생활 준비를 한 학생.
- 위의 기준을 참고하여 선정된 연구 참여자의 정보는 <표Ⅲ-1>와 같다.

2. 자료 수집

자료 수집 기간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로 1차 기초 면접 및 1:1 개별 면담의 형태로 2~3차례 추가적인 면접을 진행했으며 같은 국제학교를 졸업한 연구 참여자 중 일부를 묶어 2차례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했다.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편의와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했고 면담을 시작하기 전 기초 면담을 통해 연구 문제, 연구 배경, 연구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사전에 전달했다. 실질적인 면담시간은 각 연구 참여자 별로 매회 40분에서 2시간 30분 정도 진행 했으며 연구 참여 대상 학생들 대부분이 현재 해외 대학교에 재학 중인 관계로 영상통화 또는 모바일 메신저를 사용한 일반 통화를 기반으로 대부분의 면담을 하거나 일부 학생들의 국내 체류 기간에는 서울, 제주에서 직접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심층 면담의 진행 방식은 반구조화 된 질의 방식을 활용하여 개방적인 질의응답을 하되 중요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핵심 적인 질의 내용을 미리 선정하여 준비했다. 주요 질문 내용은 기존의 국제학교 또는 제3문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대학 생활 적응과 같은 주제를 택한 선행 연구 논문 중, 문화 적응 스트레스 척도, 대학 생활 적응 척도, 자기 효능감 척도 등을 사용한 연구(이은경, 2001; 이영선, 이동훈, 2009; 송현심, 2010; 이수경, 2014; 한수연, 2014; 김기홍, 2019 등)의 설문 내용을 참고하여 정했다.

<표Ⅲ-2> 심층 면담 질의 문항

범위	주요 질문 내용
국제학교 진학을 선택한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학교 진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인가? • 국제학교를 선택한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 • 국제학교 입학 전 가장 소망했던 부분은 무엇인가? • 국제학교 입학 전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가?
국제학교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학교 생활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는가? • 국제학교 진학을 후회하지 않았는가? • 각 교과목의 수업 내용을 잘 이해했는가? • 교사 및 친구와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 본인의 학업 성취도는 어땠다고 생각되는가? • 국제학교를 타인에게 추천 하겠는가?
해외대학 유학을 결정한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을 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인가? • 유학을 가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 • 유학을 준비하는데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는 것은? • 국제학교에서 College counseling(대학 진학 상담)은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 해외 대학 유학을 떠올렸을 때 어떤 생각을 했었는가?
대학 적응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스스로와 대학 생활에 만족하는가? • 대학 선택을 후회 하지 않는가? •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에서의 대처 방식은? • 내가 원하는 생활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 외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가? • 차별이나 불공평한 처우를 받는다고 느끼는가? • 가족이나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가? • 동아리나 클럽활동 등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있는가? • 대학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가치 중,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 앞으로 5년간의 계획은?

국제학교 진학을 선택한 이유, 국제학교 생활, 해외 대학 유학을 결정한 이유, 대학 적응과정의 범위로 나누어 질문 했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 및 대답을 유도하기 위해 단답형의 질문이 아닌 개방형 문항으로 준비해 질 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 자료는 가장 기초적으로 영상통화, 일반통화, 대면 면담 모두 연구 대상자의 동의를 거쳐 녹음하고 녹음 내용 전체를 전사(transcription)했다. 전사한 내용에 연구자가 작성한 면접 노트, 관찰 내용, 연구 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국제학교 졸업 동기들과 주고 같은 모바일 메신저 내용 등을 추가해서 자료로 삼았으며, 특정 맥락과 내용들을 기준으로 정하여 분류(coding)하고 범주화(categorization)하는 과정을 거쳤다. 위와 같은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적으로 표현한 경험의 본질을 기술하고자 했다. 또한 연구자는 과거 제주도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 1곳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재직 당시의 경험과 지식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국제학교 환경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자 했다. 또한 연구자가 근무했던 국제학교를 제외하고 근무하지 않았던 다른 국제학교에 관한 정보도 해당 국제학교나 영어교육도시 관계자를 통해 직접 구두 문의 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홈페이지 등에서 자료 획득이 가능했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가 가장 주의를 기울인 부분은 편견 배제 및 자기 검열이다.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자가 국제학교 재직 시 일면식이 있는 사이로 자료가 연구자의 편견이나 판단으로 인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주의를 기울여 자료 수집에 임했다. 면담이나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때,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연구자의 관점에 따른 자료의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참여자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로 면담이나 관찰을 수행하면, 연구자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중요한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김기호, 2014).

연구를 통해 새로이 만나게 된 학생들과는 라포(rapport)형성을 위해 노력했다. 기초 면담 단계에서부터 단순히 연구와 관련된 정보 전달에 국한하기보다는 서로를 알아 갈 수 있도록 국제학교 시스템 전반에 관련된 이야기나 영어교육도시의 환경과 같은 다양한 주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시작으로 면담을 진행했다.

3. 자료 분석

각 연구 참여자 별로 국제학교 진학과 유학생활을 선택하게 된 계기나 배경, 과정 등은 모두 다르지만 국제학교에 입학한 후 국제학교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학생들의 경험과 대학 진학 후 적응 과정에 대한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학생들의 공통적으로 지닌 맥락내에서 직접 체험한 현상의 본질을 기술하고 그 경험의 의미를 알아보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양적 연구보다는 국제학교 졸업생 개인의 배경이나 특성을 고유의 것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그 경험의 본질을 찾는 연구방법인 질적 연구방법(Creswell, 2010)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도 연구자는 이 연구를 위해 한 가지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공통된 또는 공유된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경우 사용(Creswell, 2010) 될 수 있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선택해 연구를 진행했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에는 다양한 자료 분석 방법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Colaizzi(1978)의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 참여자의 축어록을 분석했다. Colaizzi의 분석 방법은 의미 있는 구절에 대해 자료를 분석하는 일반적인 지침을 따르며, 의미들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주제로 묶어 내며, 현상에 대한 완전한 기술을 제시하는 방법으로(Creswell, 2010), 자세한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김분한 외, 1999).

- ① 자료에서 느낌을 얻기 위해 대상자의 기술(protocols)을 읽는다.
- ② 탐구하는 현상을 포함하는 구, 문장으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significant statement)을 도출한다.
- ③ 앞서 도출된 의미 있는 진술에서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재진술(general restatement)한다.
- ④ 의미 있는 진술과 재진술로부터 구성된 의미(formulated meaning)를 끌어낸다.
- ⑤ 도출된 의미를 주제(themes), 주제모음(themeclusters), 범주(categories)로 조직한다.
- ⑥ 주제를 관심 있는 현상과 관련시켜 명확한 진술로 완전하게 최종적인 기술

(exhaustive description)을 한다.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들에게 전사내용이나 논문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피드백을 받는 연구 참여자 확인(member check)과정을 거쳤으며 기존 국제학교 재학 당시 서로 친분이 있는 KIS를 졸업한 연구 참여자 3인을 모아서 그룹 영상통화 인터뷰를 1회, BHA를 졸업한 연구 참여자 2인을 모아서 그룹 영상통화 인터뷰를 1회 진행했다. 또한 연구 참여자에게서 같은 학교를 졸업한 동기와의 SNS 및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전달 받아 검토하는 과정을 포함시켜 자료 분석을 진행했다.

IV. 연구결과

1. 유학 이전 국제학교 재학 당시의 생활

제주 국제학교 졸업생이 해외 대학 유학 생활을 하면서 겪는 경험과 그에 대한 의미 부여는 제주 국제학교 졸업이라는 특별한 맥락에서 비롯됐다. 먼저 국제학교 졸업생이 해외 대학 진학 이전에 국제학교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생활을 했는지 맥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교생활

일반적으로 국내에 소재한 국제학교는 해외학부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입학하는 학교로 볼 수 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삼아 국제 공통의 표준교육과정을 채택하여 대부분의 과목을 영어로 진행하는 국제학교는 성공적인 유학 목표 수립과 영어습득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유학 준비생들이 선택하는 대안이기도 하다. 학생들은 국제학교에서의 다양한 교육과정이나 클럽활동, 미국 표준교육과정과 유사한 교과목의 수업을 통해 미리 적응과 훈련과정을 거치게 된다(윤초희, 한수연, 201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영어교육도시내의 국제학교들은 국내 타 지역에 위치한 국제학교들과 성격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입학 조건의 여부이다. 대부분의 국제학교/외국인학교는 부모 중 적어도 한 명 이상이 외국국적자여야 하며 학생의 국적이 한국인 경우 적어도 3년 이상 해외 거주 경험이 있어야만 입학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제주도의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는 위와 같은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지 않아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의 관심을 끌고 있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국내학력 인정 부분을 들 수 있다. 제주와 인천 송도 등 별도로 지정된 지역이 아닌 경우 대부분의 국제학교/외국인학교는 국내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외 대학으로 진학하거나 국내 대학에 진학을 희망하면 별도의 외국인 전형과 같은 특별 전형을 거친 소수의 학생만 입학이 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제주의 국제학교는 개교와 동시에 국내 학력을 인증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으며 국내 학력 인증을 위해 학생들은 주당 2시간 이상 국어와 사회(국사 포함) 과목을 한국 교사 자격을 소지한 교사로 부터 수업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국제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국국적을 소지한 내국인 학생들이며 소수의 외국인 교사의 자녀들과 중국인, 일본인 등을 포함 외국 국적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국제학교가 위치한 영어교육도시는 해외 유학에서 돌아온 학생들의 부적응 문제, 기러기 아빠 문제, 해외 유학에 따른 무역 수지 악화 등을 완화하기 위해 계획되다 보니 이들 학교들이 갖는 특이점을 또 하나 꼽는다면 바로 기숙사 생활이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4학년부터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높은 학년으로 진학할수록 학생들의 기숙사 사용률은 높아지는 편이다.

국제학교의 학교 일과 시간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크게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과 활동은 앞서 기술한 AP, IBDP와 같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과목과 학생들이 수강 신청 과정을 통해 정하는 선택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교과 활동은 클럽활동, 봉사활동, 기숙사 생활, 카운슬링(상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1) 교과 활동

교과 활동은 각 학교별로 제공하는 교육과정과 일정에 따라 다양하다. 연구 참여자 중 5명이 졸업한 K교를 살펴보면 고등 과정 졸업을 위해 적어도 25학점이 필요하며(2020년 졸업예정자 기준)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외국어, 체육(건강), 멀티미디어 및 기술, 스피치 및 토론, 시각 및 공연 예술등과 같은 과목 구분 별로 정해진 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한다. 학생들의 성적은 Exceeding(A+, A,

A-), Meeting(B+, B, B-), Approaching(C+, C, C-), Begining/incomplete(D+,D, D-, F)으로 나누어져 매겨지며 교과 과목 중 일부 주요 과목에는 Honors Class (우수반) 수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 대학학점선 이수제인 AP는 AP Language and Composition(언어 및 작문), AP Chemistry(화학) 등과 같은 17개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AP과목은 일반 교과목과 비교해 난이도가 높은 편이고 학기를 마친 후 AP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에서는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기준을 넘어서지 못한 학생들은 AP 과정을 들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AP 과정을 듣기 위해서는 전체 과목 평점이 3.33점 이상 이어야 하며 관련 교과목의 교사로부터 추천서, AP 과목을 위한 선이수 과목 수료, AP교과목 교삭 부여한 여름 방학 과제를 성공적으로 끝내야만 한다. 또한 학년별로 수강할 수 있는 AP 과목수도 정해져 있는데 10학년은 1과목, 11학년은 2과목, 12학년은 3과목을 초과해서 신청할 수 없다(KIS High School Course Guide 2018-2019, 2019).

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상당수의 학부모들은 대학입시와 관련 없이 자녀에게 자유로운 교육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 국제학교를 선택했다고 하지만(임정미, 2017), 국제학교라고 해서 수업이 수월하다거나 학습량이 적은 것은 결코 아니다. 다음은 연구 참여자 A가 언급한 내용이다.

만약에 국제학교를 지원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저는 국제학교로 간다고 해서 한국처럼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여기서도 원하는 대학을 지원하고 싶다면 노력을 해야만 하고 국제학교라고 해서 과외 받거나 학원 다니는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똑같이 물론 수능 준비하는 애들만큼은 아닐 수 있지만 여기서도 똑같이 공부가 힘든 건 마찬가지라고 전해주고 싶어요.

(연구 참여자 A, 1차면담, 대면면담, 2018년 12월 17일)

연구 참여자 A는 기초 면담 과정에서 국제학교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국내의 공교육이 주입식 교육, 학원 등과 같은 사교육 중심, 성취도 위주의 평가에 대한 불만이었다고 언급했다. 국제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는 주입식 교육이나 사교육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나기는 했지만 영어로 학습해야만 하고 시험이나 과제 뿐만 아니라 수업 참여도, 토론 등과 같은 다양한 학점 부여 방식을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총 8명의 연구 참여자 중 3명이 졸업한 B교의 경우 여학교의 특성에 맞춰 세상을 움직이는 핵심 역할을 하는 훌륭한 여성으로의 성장을 위한 자극 및 격려를 목표로 삼아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사 대 학생 비율을 1:10으로 맞춰 수업을 진행하며 고등학교 과정의 11학년부터 마지막 학년인 12학년까지 IBDP(국제공동대학입학자격제도)과정을 바탕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IBDP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직전 학년 모든 과목의 평점이 만점 7점 중 4점을 넘어야 하고 단 한과목도 2점이 있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수강하고자 하는 각 과목의 교사로부터 추천서가 필요하다.

IBDP 과정 수료를 위해서는 총 6개의 그룹(Creativity, Action, Service, Extended Essay, Theory of knowledge)으로 나뉜 과목 중 각 그룹에서 하나 이상의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IB에는 Higher level(상위 과정)과 Standard level(표준 과정)이 있는데 3개 이상의 과목을 Higher level로 마쳐야만 하며 Higher level과 Standard level의 차이점은 수업의 난이도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도 차이가 있는데 Standard level은 수업 시간이 150시간인 반면, Higher level은 과목별로 240시간 이상의 시수를 맞춰야만 한다. 수강 신청 시에 고려해야 할 다른 부분은 언어 과목으로 2과목 이상의 언어 과목(영어, 한국어, 중국어 등)을 수강해야 하고 IB DP Math(수학)의 경우 A-이상의 과목 성적을 유지해야만 상위 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학생들에게 사전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자동적으로 학생들의 수업이 배정되는 방식을 따른다.

B교의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IBDP과목은 총 22개 과목으로 Higher level로는 18개의 과정, Standard level로는 21개의 과정이 개설되어 있어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보다 넓은 편이다(2017-2018학년도 기준). IB 교육과정이 전 세계적으로 신뢰를 받고 각광을 받는 이유는 바로 객관성 때문이다.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시험 외에도 외부에서 진행되는 평가와 시험이 많이 있어 IB과정을 밟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공평한 환경에서 성취도를 평가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볼 수 있다(Branksome Hall Asia Diploma program Curriculum Guide 2017/18).

IBDP 과정을 바탕으로 국제학교를 졸업한 연구 참여자 F를 통해 기본적인 IB

과정의 수업 진행 방식을 엿볼 수 있었다.

수학은 문제를 내고 학생들이 앞에 나가서 풀고 하는 과정도 있고 Business(경영)과목 같은 creative한 과목은 선생님이 과제를 주시면 팀별로 과제를 하고 팀끼리 논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국어나 영어는 아무래도 Essay를 써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수업시간 안에 Essay쓰는 시간도 많이 주시고 했었어요. 일방적으로 강의형식으로 전달하시 보다는 선생님이 초기 2~3시간 수업동안 어느 정도 정보를 주시고 전해들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거나 Essay를 쓰고 하는 방향으로 수업이 진행됐어요.

(연구 참여자 F, 그룹인터뷰, 다자통화, 2019년 6월 4일)

연구 참여자들이 언급했던 전체 IB과정의 특징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수업 방식을 들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제시된 틀과 정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연구, 관찰하는 방식을 통해 내용을 채워가는 방식이었다. 각 과목별로 수업의 진행 방식은 다르지만 각 과목별 특성에 맞는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C는 학생 스스로가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지 않으면 수업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IB가 어렵다는 말은 예를 들면 IB Math(수학)는 선생님은 정말 잘 가르치시는데 수학 자체에 정말 흥미가 있고 정말 자신 있는 학생이 아니라면 수업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일단 수업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시험도 당연히 어렵고요. IB과목 중에도 특히나 더 어려운 과목들이 있어요. Mathematics(수학), Physics(물리) 이런 과목인데 선생님이 아무리 훌륭하고 준비가 잘 되어 있더라도 관심이 없이는 어려운 과목이고 비교적 쉬운 과목도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Korean(한국어)과목이 아무래도 우리가 한국어가 유창하기 때문에 Standard level로는 대부분 6~7점 쉽게 받을 수 있고 Higher level로 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과목마다 차이가 있어요.

(연구 참여자 C, 그룹인터뷰, 다자통화, 2019년 6월 4일)

많은 수의 IBDP 과정의 과목들이 상위과정과 표준과정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상위 과정의 높은 난이도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에 맞는 수강 선택이 필요하다고 연구 참여자 C는 강조했다.

(2) 비교과 활동

국제학교는 다양한 과목을 수업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서구 국가에서 중요시 하는 예술, 체육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학 입시에서도 소위 랭킹이 높다는 명문대학교들도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아닌 다양한 경험을 하고 소속한 학교를 위해 봉사를 하는 Well-rounded(균형 잡힌) 학생을 선호한다. 그에 따른 결과로 국제학교에서는 방과 후 시간과 기숙사 생활시간 등을 활용한 비교과 활동 제공을 통해 해외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글로벌 문화 자본 - 예술, 문학, 봉사 등 - 축적을 위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임정미, 2017).

제주의 국제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비교과 활동 중 동아리/클럽활동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먼저 K교의 경우, 방과 후와 주말에는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잠재력과 취미를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재학생들은 방과 후 특별활동으로 MUN (모의유엔), Debate, 오케스트라, 수영, 요가, 미디어, 글로벌이슈 등 30여 개 과목 중 의무적으로 2~3개 이상을 선택해 활동해야 하며 토요일에는 제주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승마, 골프, 스쿠버다이빙, 요트와 같은 해양스포츠, 볼링 등의 야외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비교과활동을 통한 외부와의 교류도 이어가고 있는데 MUN(모의유엔)과 같은 클럽은 국내·외 수시로 개최되는 모의유엔 행사에 참여해 학생들의 토론 실력 함양뿐만 아니라 교류의 장으로도 활용하고 있으며 스포츠 팀 활동의 경우 단순한 취미로서의 운동이 아닌 전문적인 기술과 체력을 기를과 동시에 페어플레이 정신, 팀플레이 정신등도 함께 익힐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봉사활동도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는데 2020년도 졸업생부터 4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 시간을 채워야만 졸업이 가능하도록 졸업 기준을 변경했다. 연구자의 근무 경험이 비추어 보면 학생들의 봉사활동은 단발적이거나 짧은 시간 내에 형식을 채우기 위한 봉사활동 보다는 정기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역 사회나 어려운 형편에 놓인 해외 지역의 아동 등을 위한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1년 중 1주일정도를 Service leading week(봉사활동의 주)로 삼아 학교가 주도하는 해외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봉사 활동 장소는 주거 상황이 여의치 않은 개발 도상국가의 지역으로 선정하여 행선지를 정하며 고아원의 집을 함께 새로이 지어주는 등 학

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 기회를 주고 있다. 해외 봉사활동을 대신하여 지역사회(제주도내)를 위한 봉사활동을 선택할 경우 학교 근처의 마을의 벽화를 그려주거나 잘못된 영문 표기 등을 바로 잡아주는 등의 활동을 하며 1주일가량을 보내게 된다. 또한 지역 사회의 도서관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영어책 읽기와 같은 봉사활동을 매주말마다 진행하는 등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과 감사한 마음을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국제학교는 다양한 경험과 활동 범위가 있어요. 방과 후 스포츠나 해외 봉사를 가는 경험도 있는데 저는 저학년 학습 도와주거나 봉사활동, 학생회, 스포츠 활동도 잠깐 했어요. 대학교에 와서 1학년 때 동아리 페어를 가서 어떤 동아리를 들까 하고 고민을 할 때도 국제학교에서 해왔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해외 봉사 활동 동아리같이 그간 해 왔던 활동들 위주로 보게 되더라고요. 혹시 여기 대학교에도 국제학교에서 했던 것처럼 비슷한 활동이 있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하면서 찾게 되더라고요.

(연구 참여자 G, 1차면담, 영상통화, 2019년 4월 21일)

연구 참여자 G는 국제학교 재학 당시 봉사활동에 많은 자유시간을 사용했다. 저학년 학습 도우미나 지역 사회의 도서관에서 영어 책 읽어주기와 같은 봉사활동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해 온 학생이다. 대학교에 진학해서도 국제학교 재학 당시와 비슷한 봉사활동 동아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여름 방학을 맞아 남아메리카 지역으로 해외 봉사활동을 떠나기도 했다.

확실히 국제학교 다닐 때 동아리나 클럽 활동으로 운동 같은걸 많이 하게 해줘서 스트레스 받고 막막하고 혼자 힘들 때 헬스 가서 운동하고 길거리 농구하는데 있으면 친구랑 같이 농구하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어요. 국제학교에서 공부만 시킨 게 아니라 운동도 함께 할 수 있게 해줘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익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국제학교에 참 감사하죠.

(연구 참여자 B, 다자통화, 그룹인터뷰, 2019 5월 18일)

연구 참여자 B는 국제학교에서의 동아리 또는 클럽활동으로 운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익혔다고 밝혔다. 실제로 연구 참여자 B는 농구, 육상과 같은 학교의 운동팀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여러 차례 우수선수상이나 육상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도 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또 다른 국제학교인 N교의 경우 비교과활동을 학교의 가

장 중요한 구성 요소로 보고 교사, 학생, 그리고 외부 전문가가 협력하여 매주 180여개 이상의 클럽, 활동, 학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비교과활동을 제공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대학, 직장 및 전반적인 삶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보기 때문이며 학교와 교사는 안전하고 세심한 환경에서 학생이 회복 탄력성, 적응력, 의사소통능력, 공감, 헌신 그리고 리더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스로를 시험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학교에서 기숙사도 중요한 비교과활동의 일환으로 자리 잡혀 있다. 등교 이전 준비시간과 오후에는 방과 후 시간부터 취침시간까지 함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학교별로 각기 다른 호칭으로 불리고 있지만 기숙사에서 부모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학생들의 관리 역할은 기숙사 사감이 맡고 있다. 아침 기상시간부터 학교 등교까지 오전 시간의 관리와 하교후의 별도 클럽활동, 자습시간, 악기 또는 예술 과목 과외 등과 같은 스케줄 관리, 방 청소 상태 확인, 자유시간 관리, 컴퓨터 및 휴대전화 보관이나 식사를 함께 하는 등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업무를 맡는다. 학생들 곁에서 가까이 생활하며 지내다 보니 사소한 고민거리를 들어주기도 하고 함께 영화 관람이나 게임등과 같은 여가 시간도 함께 보내게 된다. 저학년일수록 스스로의 빨래나 청결 관리 등을 성인이 대신해주고 혼자서 다른 건물로 이동하거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등 학생들의 자율성은 낮은 편이며 고학년이 될수록 스스로 자유시간 관리를 하고 전자 기기 사용 등에 제약이 없는 대신 방청소, 빨래와 같은 집안일을 스스로 맡아서 하게 된다.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너무 힘든 점도 많았지만 그만큼 사실 추억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는 동안은 가족들보다도 친구들이랑 더 오래 있었잖아요. 말 그대로 24시간 함께 있으니까. 그래서 기숙사에서 지내는 동안 규칙이 막 되게 엄격했던 만큼 힘든 점들도 많고 그랬다 보니까 애들끼리 되게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특히 저학년 때는 밥도 혼자 먹으려 못가고 밥을 먹기 싫어도 함께 이동해야 하니까 식당으로 같이 가야 하는 제약 같은 게 많았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자유시간이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아 졌어요.

(중략)

저는 KIS에서 굉장히 대학교 생활에 대한 준비를 많이 도와줬다고 생각해요. 특히 기숙사 생활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독립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떨

어저서 생활 하고 다른 사람들과 생활하는 것이요. 적어도 일정 부분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었어요. 의도적이었던 아니든 저는 KIS통해서 많이 성장하고 성숙해진 것 같아요. 생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대학교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어요.

(연구 참여자 A, 1차면담, 대면면담, 2018년 12월 17일)

기숙사 생활은 단체생활이다 보니 가정에서 부모님과 생활하는 것보다 제약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저녁이 되면 정해진 소등시간 이후에 다른 친구의 방으로 가거나 전자기기 사용에 제약도 있었으며 식사를 하기 싫어도 함께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연구 참여자 A는 회상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 참여자 A는 타인과 함께 생활하는 방법을 익혔으며 현재의 대학 생활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전했다.

일반학교와 국제학교 간에는 많은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을 꼽자면 연구자는 상담프로그램을 들고 싶다. 국제학교에는 전 학년에 걸쳐 각 학년별 또는 분과별 카운슬러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고등학교에는 대학 입학과 진로 상담을 위한 College/University Counselor(이하 진로 상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카운슬러들은 학생들의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징계가 필요할 경우 가장 중요한 참고인으로 여겨지는 등 학생들의 생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연구자의 국제학교 Counseling department(상담 분과) 근무 경험에 비추어 보면 고등학교의 진로 상담 교사들은 대부분 상담관련 학위와 미국 내 상담교사 자격증을 소지함과 동시에 별도로 진로/진학 상담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채용이 되며 학생들의 학적 및 성적 관리, 학생 및 학부모와의 면담, 대학교의 입학 안내 사절단 스케줄 관리, 각 대학의 입학 담당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많은 업무가 많다. 그렇다 보니 학생들에게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바로 제공하기 보다는 일반적인 기준에 맞추어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별도의 지원을 하게 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다음은 연구 참여자 A의 이야기 이다.

제 기억으로는 완전히 미국대학으로만 초점을 맞춰주신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까지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한국대학을 가도 되지만 학교에서는 도움을 줄 수 없다. 라고 까지 하면서 미국 대학 쪽으로 몰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컬리지 카운슬러가 바뀐 것도 있었고. 사실 조금 더... 글썄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나 저희 부모님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도움을 받긴 받았는데 너무 많이 바란 걸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큰 도움을 받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 길인데 제가 알아서 해야지. 학교에서 다 알아서 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가이드만 해주고 모든 건 다 알아서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연구 참여자 A, 1차면담, 대면면담, 2018년 12월 17일)

연구 참여자 A와 그의 부모는 대학 입시 관련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보니 진로 상담 교사로부터 받았던 일반적인 기준과 조언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다수의 학생들을 소수의 진로 상담 교사들이 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아쉬워했던 연구 참여자 A였다.

영어교육도시의 역사가 짧다 보니 B교를 처음으로 졸업한 학년에 속해 있던 연구 참여자 F는 정보와 지식의 부족이 가장 어려웠다고 전했다.

제가 학교에 첫 졸업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이 많이 부족했어요. 뭘 해도 선배들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옆 학교에서 정보를 조금 얻을 수 있었는데 저희 학년은 경험 있는 사람들이 없다보니까 어려웠어요. 켈리지 카운슬러 선생님도 저희가 처음이라서 서로가 아는 게 없어서 힘들었어요. 80%는 제가 직접 정보를 찾아보고 지원도 하고 Personal statement(자기소개서)도 카운슬러 선생님이 아니라 영어 과목 선생님이 도와주셨어요.

(연구 참여자 F, 1차면담, 일반통화, 2019년 2월 17일)

또한 진로 상담 교사별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 학생들에게는 혼란을 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연구 참여자 A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자면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대학을 딱 10곳에만 지원할 수 있었어요. rich(상위)랑 target(목표), safe(안전)로 나뉘어서 지원하게 했잖아요. 그게 개개인 학생들의 성적이나 했던 활동에 따라서 rich school(상위 학교)이 누구한테는 rich 일 수 있고 target일 수 있는데 그런 개별적 차이를 안두고 이 학교는 무조건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이 학교는 무조건 rich, 여기는 target이렇게 나눠버려서 정작 원하는 학교들을 지원할 수 없게 했어요. 제 담당 선생님들 그렇게 나눠서 지원하기 어렵게 만드셨던 분이고 다른 선생님들 막.. 너무 학생들에게 차이를 많이 둔거죠. GPA높은 애들은 거기 충분히 할 수 있어 하면서 막 지원하게 하고 좀 떨어지는 친구들은 아예 지원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카운슬러마다 차이가 있어서 학생들이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굉장히 답답했어요. 붙어도 가지 않을 학교인데 application fee(입학 지원 비용)

를 써가면서까지 지원하게 하고 안갈 거 아는데도 지원하게 시키니까 safe는 무조건 있어야 한다고 지원하게 했어요.

(연구 참여자 A, 1차면담, 대면면담, 2018년 12월 17일)

학생들의 학교생활 어려움이나 진학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상담교사들이 배치되어 있지만 개별적이고 상세한 정보 제공을 받지 못했던 부분과 상담 교사 별 진학 상담 및 대학 지원 방식에 차이가 있었던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을 수 있다.

2) 가정생활

연구의 참여자들의 해외 대학 유학 생활은 연구 참여자 별로 경험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국제학교 생활과 졸업이라는 배경과 함께 그들의 가정의 생활을 배재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 행동과 교육 관여 행동이 자녀의 역량감과, 유대감 및 친사회적 행동에 통계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있을 뿐만 아니라(손선옥, 2018), 국제학교의 교육비는 연간 최소 3~4천만 원으로 부모가 상당한 경제력이 있어야만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기숙 생활, 홈스테이 등 부모와 떨어져 생활 하거나 부모가 제주로 함께 이주해 자녀와 거주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다. 이로 인해 국제학교 학비를 감당하기 위한 학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자들을 대하는 양육 방식과 자녀와의 관계 등에서도 연구 참여자들의 해외 대학 생활의 경험과 의미부여에 영향을 미친 맥락이 있으리라는 판단 하에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부모와의 관계 및 가정생활에 대해 이야기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3부류의 가정환경 및 양육 환경으로 나누어 졌다. 먼저 연구 참여자에게 기본적인 정보 제공은 하지만 대부분의 조사와 결정, 책임을 자녀가 하도록 하는 가정(연구 참여자 A의 가정), 조언이나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되 그에 따르는 선택과 책임을 지도하도록 하는 가정(연구 참여자 C의 가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사항과 선택, 책임을 모두 부모가 관리하는 가정(연구 참여자 B의 가정)으로 나누어 졌다.

연구 참여자 A의 가정은 가족 구성원간의 소통을 증시하고 책임감을 일찍부터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정환경이 이루어져 있었다. 국제학교 입학 선택했던 이유에 관한 질의를 받고 연구 참여자는 호주에서 거주 경험이 1년 정도 있었다고 밝혔다. 부모의 지인이 호주에 거주하면서 연구 참여자 A와 그의 여동생이 호주로 유학을 다녀올 기회가 생겼던 것이다. 호주에서의 거주 경험이 국제학교 입학 선택과 그 이후 생활과 국제학교 체계 적응에 도움을 주었다고 이야기 했다.

2007년, 1년 정도 호주에서 5학년을 보냈는데 그때 호주에서 학교생활이 너무 좋았어요. 자유롭게 토론하는 문화, 그리고 전혀 peer pressure(또래 압력) 없이 궁금한 건 손 번쩍 들어서 질문할 수 있는 환경, 운동이나 음악활동도 중요시 여기는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되게 좋았었는데 다시 한국 학교로 돌아와서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중략)

힘든 학교생활을 하던 도중에 저희 어머니께서 국제학교가 개교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는 이런 학교가 너한테는 좀 더 맞을 것 같다. 하시면서 한번 살펴보고 하셨어요. 저는 별로 고민도 안하고 바로 해보겠다고 했어요.

(연구 참여자 A)

제 부모님은 학업적인 면에서는 스트레스를 주시진 않으셨어요. 학교생활을 대단하게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성공해라라는 압박을 주신적도 없으셨지만 “국제학교를 진학한다고 하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너에게 있다. 국제학교가 맘에 들지 않으면 일반 학교로 다시 왔을 때 반대로 시작하는 학년 때문에 또래들보다 늦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가 그거는 각오해야 한다. 여길 가게 되면, 이게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학교에 다녀야 한다. 만약 여기서도 적응을 못하면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또래들보다 너무 늦어진다. 이 학교가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부담이긴 했지만 그런 조언 외에는 별다른 압박은 주시진 않았어요.

(연구 참여자 A)

또한 연구 참여자 A의 가정은 호주로의 조기 유학을 선택 하는 과정에서부터 국제학교 입학 선택과 같은 인생의 중요 결정에는 연구 참여자 A의 부모는 적극적으로 그의 의견을 의사 결정에 반영 했다. 국제학교 입학 후에도 학업이나 기타 활동에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았으며 연구 참여자 A도 중요 결정이 있을 경우를 빼고는 스스로 결정하며 그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이는 습관을 익혔다. 이는

대학 진학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저희 부모님도 말씀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수백만 원이 드는 사설 업체를 통해 대학 진학 준비를 하기도 했고 에세이 써주고 하는 업체를 쓰기도 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해라. 학교를 믿고 학교에서 하는 대로 따라 하면 된다.” 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항상 그런 걸 강조하셨어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씀 하시는 게 아니고 학교를 믿고 따라 가라셨어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카운슬러 선생님들과 얘기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연구 참여자 A)

신혜진(2018)의 국제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녀를 국제학교로 진학시킨 학부모들은 사교육이 없는 곳을 찾아 제주까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입시 대비 구조상 여전히 사설 대학 입시 업체나 학원과 같은 사교육을 찾게 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 A의 부모는 학교의 방침을 지지하고 따르라는 조언을 연구 참여자 A에게 전했으며 대학 입학 원서 작성과 진학 선택에서 스스로 선택하거나 필요할 경우 학교 카운슬러 선생님들과 논의하도록 했다. 얼핏 보면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입시에 큰 관심이 없는 학부모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연구자 또한 연구 참여자 A의 부모를 학교 행사 및 면담 등에서 여러 차례 마주한 경험이 있다. 그의 어머니는 학부모회의 임원이기도 했으며 학교의 행사를 다방면에서 지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학부모로 기억한다. 이러한 가정생활을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 A는 국제학교 생활과 대학 진학 이후 생활에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를 길러 온 것으로 보인다.

연구 참여자 C의 가정은 조언이나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되 그에 따르는 선택과 책임을 지도록 하는 가정으로 연구자는 분류 했다. 국제학교 입학 당시부터 연구 참여자 C의 부모는 당시 국제중 쪽으로 진학을 고려하고 있던 연구 참여자 C에게 적극적으로 영어교육도시와 국제학교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며 검토 해볼 것을 권했다. 또한 연구 참여자 C의 어머니는 자녀의 국제학교 입학 을 위해 제주로 이주해 함께 생활을 하는 등 헌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학교로 입학할지 다른 방향으로 길을 찾아 갈지는 연구 참여자 C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다.

제일 먼저 외할아버지께서 신문을 보시다가 제주에 국제학교가 들어온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원래는 국제중이나 일반중학교로 고려를 하고 있었는데 부모님도 정보 알려주시면서 봐보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결정은 제가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교육열이 강하셔서 제주 국제학교는 처음 생기는 곳이기도 하고 선배들의 진학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준비하던 쪽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고 하셨는데 국제학교 쪽으로 제가 결정을 하고 이쪽으로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연구 참여자 C, 1차면담, 일반통화, 2019년 5월 16일)

연구 참여자 C와 가족들은 수원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가 국제학교 진학을 위해 제주로 이주를 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는 직장 문제로 수도권에 그대로 남고 국제학교 진학을 결정한 연구 참여자 C와 친언니는 어머니와 함께 제주로 내려오면서 기러기 가족의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았다. 당초 국제중학교나 인근의 일반 중학교로 진학을 고려하던 중 국제학교가 개교한다는 소식과 함께 입학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부모님은 적극적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검토에 필요한 정보도 다방면에서 구해서 전달하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 C 스스로도 부모님의 교육열이 강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지만 마지막 국제학교 입학 결정은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저는 엄마랑 조금 더 가까워요. 엄마랑은 통학을 계속하고 엄마랑 떨어져 지내질 않아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나 공부 관련된 일, 선생님 조언이라든지 전반적인 인생에 대한 조언에 대해서도 엄마랑 얘기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대학에 와서도 자주 전화하고 일상적인 얘기도 많이 해요. 아빠랑은 아무래도 거리가 좀 있어요. 아무래도 떨어져 있기도 했고 제가 항상 일어나기 전에 회사에 나가시고 제가 잘 때 집에 들어오시니까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C, 1차면담, 일반통화, 2019년 5월 16일)

부모님과의 관계를 얘기 하던 중 연구 참여자 C는 어머니와 더 친근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앞서 전한 바와 같이 기러기 가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주로 이주를 결정하며 자녀 2명을 통학으로 국제학교 생활을 6~7년간 뒷바라지 한 어머니이기도 했고 사소한 얘기도 함께 나눌 만큼 가까운 사이였다. 다만 아무래도 떨어져 지낸 시간과 거리로 인해 아버지와의 거리보다 어머니와의 거리가 가깝다고 보고 있었다.

대학교 지원당시에 지역은 전혀 고려를 안했어요. 엄마도 학교관련해서 정보 많이 찾아봐 주시기도 했지만 일단 국제학교에서 대학교를 지원할 때는 대학교 랭킹을 보고 지원을 했어요. 실제로 합격증을 받아보니까 학비가 너무 비싼 학교에서만 오퍼가 온 거예요. 그때서야 대학교 지역이나 프로그램 같은 걸 보게 됐는데 맘에 들지 않아서 Gap year(입학 전 휴학)를 갖기로 결정 했어요. 부모님도 결정에 동의해 주셨고요. 그 이후에 제가 원하는 게 프로그램이 뭔지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정치, 경제, 철학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곳이 원래는 영국에서만 있는데 미국 내 이 프로그램이 있는 곳으로 찾아보기도 했고 장학금을 주는 대학교 쪽으로 지원을 해서 대학 진학을 이쪽으로 하게 됐어요.

(연구 참여자 C, 1차면담, 일반통화, 2019년 5월 16일)

연구 참여자 C는 국제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교 진학을 선택하기 보다는 1년 동안 Gap year(입학 전 휴학)를 갖으며 보다 적성에 맞는 대학교를 찾아보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보냈다. 부모님은 물론 먼저 국제학교를 졸업하고 해외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던 언니도 연구 참여자 C의 결정을 응원해줬다. 마침내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장학 혜택까지 지원 약속을 한 대학에 입학 했으며 1년을 쉬는 동안 ‘공부’가 그리웠던 연구 참여자 C는 대학에 입학하고 첫 학기동안 다른 부분에 신경 쓸 겨를 없이 오로지 공부에 초점을 두고 1년을 쉬 공백을 메워가고자 했다. 어찌 보면 연구 참여자 C에게 Gap year는 모험이었다. 상위 랭킹의 학교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1년을 준비해 다시 입학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의 불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학교와 전공에 만족하고 있으며 장학금 수령으로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렸다는 만족감도 무시할 수 없는 성취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 B는 부모가 자녀의 전반적인 생활과 중요 결정 사항, 그에 따르는 책임 관리까지 모두 부모님이 도맡아 관리해주는 가정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국제학교 재학 이전 시간부터 부모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가 매우 가까웠으며 친구와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도 어머니와 할 수 있을 만큼 친밀했다. 연구자에게도 연구 참여자 B와 어머니의 관계는 친구 이상으로 가까운 사이로 보였다. 사소하게는 머리색부터 의상을 고르는 안목까지 비슷했었기 때문이다. 국제학교 입학부터 연구 참여자 B는 부모의 권유로 국제학교를 선택하게 됐으며 이후 수강 신청이나 동아리, 스포츠 활동과 같은 결정들을 어머니의 의사에 따라

결정했다. 더할 나위 없이 가까워 보이기만 했던 모녀 사이는 대학 입학 지원서 작성기간부터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엄마가 제가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 쪽으로 대학을 갔으면 했고 저는 미국으로 무조건 가고 싶어 했어요. 엄마랑 의견도 다르기도 했고 일단 엄마 따라서 지원했던 대학교에 다 떨어졌었어요. 다섯 개 원서를 넣었는데 다섯 개가 다 떨어진 거예요. 4월에 인터뷰 봐서 6월에 나왔거든요. 남들 다 합격증 받아놓고 놀 때 아직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때 엄마에 대한 원망이 생겼죠. 나도 미국 원서 넣었으면 12월에 결과 나와서 놀고 있을 텐데 내가 왜 이래야 하나. 원망은 생기는데 엄마랑 싸워본 적은 없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싶고. 막.. 답답하기만 했었어요.

(중략)

막.. 앓다가 대학교 와서 괜찮았으면 앓던 게 풀렸을 텐데 처음 적응 과정이 힘들다 보니까 이제 미운 거죠.. 엄마랑 잘 연락도 안됐고요. 저 혼자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평소에 안하던 것들. 그래서 공부 안했었죠. 저 하면 공부만 하는 애잖아요. 그냥 공부만 공부만 하는 애잖아요. 공부에 목숨 걸던 사람인데 처음으로 났어요. 공부가 나를 원하는 길로만 데려 가는 게 아니구나 하고 느낀 거예요. 처음으로 느꼈어요. 공부가 나를 배신 한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원하는 대학도 못가고. 솔직히 내가 편하지도 않고. 서글펐죠.

(연구 참여자 B, 1차면담, 대면면담, 2018년 12월 26일)

대학 입학 지원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 B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결정만 옳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본인이 원했던 지역과 부모가 원하는 지역은 큰 차이가 있었고 결국은 부모의 뜻에 따라 아시가 국가로 진학을 결정한 후에도 연구 참여자 B는 힘들었던 대학 적응과정과 부모와의 문제, 자신의 정체성과 진로 문제 등으로 고민의 시간을 보냈다.

제가 대학교 와서 깨달은 게 거리가 엄마랑 생기고 나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를 엄마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처음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맨날 엄마가 하라는 데로만 따라 갔으니까. 공부해 하면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는데 공부를 하면 좋단니까 했어요. 잘하고 싶었으니까. 승부욕이 있으니까.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면 잘 되니까. 따라가기만 했었는데 처음으로 대학교 와서 연락도 잘 안되고. 거리가 있잖아요? 엄마도 옆에 없고 하니까 처음으로 나랑 마주보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일부러 연락을 안 하기도 하고 중요

한 결정도 엄마와 상의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결정해버리고 하면서 엄마랑 관계도 점점 안 좋아졌죠. 엄마도 당황했을 거예요. 제가 변해 버린 거니까요.

(중략)

대학교 입학할 때쯤으로 돌아가서 다시 결정할 시간을 주겠다! 다시 시작할래? 하면 저는 다시 안 해요. 정말 치열하게 살았고 안 해봤던 거를 해봤기 때문에 지금의 저 자신이 좋아요 부족한 면이 있지만 덕분에 전에는 가족만 보고 가족 중심으로 지내다보니까 친구들과도 적당히 거리 두고 살았는데 이 경험 덕분에 친구라는 게 이런 값진 관계구나라는 경험, 기억을 줄 수 있구나! 라고 느꼈어요. 가족들한테서 한발자국 떨어져서 볼 수가 있었던 경험이 있어서 저한테는 참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엄마가 옆에서 코치를 했는데 엄마한테서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볼 수 있으니까. 그게 참 중요한 발전이라 생각해요.

(연구 참여자 B, 1차면담, 대면면담, 2018년 12월 26일)

가족과 연락을 일부러 회피하고 지내면서 연구 참여자 B는 스스로와 마주보기도 하고 주변 친구들의 존재에 대해서도 소중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비록 가족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는 과거처럼 친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에 연구 참여자 B는 만족하고 있었다. 가족, 교사, 친구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유명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좌절감은 대학에서 시간을 보내오면서 누군가 미리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기 보다는 조금은 불편하고 고르지 못한 길이라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기쁨으로 보고 있었다.

지금 엄마랑 사이는 훨씬 낫아요. 엄마가 이제 제가 힘들 때 힘이 되어주니까 고맙고 동시에 내가 결정할 것들은 내가 결정해서 엄마한테 알려주죠. 100퍼센트 다 묻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다 결정하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엄마한테는 통보해 주고 하는 방식을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랑 거리가 멀어지니까 엄마랑 평생 안볼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싫더라고요.. 시행착오를 겪고 있어요. 나와 엄마의 관계는 어디까지 인가. 왜냐하면 엄마가 나한테 큰 힘이 되어 주는 건 너무 고마운데 엄마 입김이 너무 들어간 인생 보다는 제가 만들어 가고 싶어요.

(연구 참여자 B, 1차면담, 대면면담, 2018년 12월 26일)

연구 참여자 B는 누군가에게서 지시받고 따라가는 삶이 아닌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가족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반항하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어머니와 함께 시행착오를 겪으며 서로 맞춰가고 회복해 나가고 있다.

2. 유학 생활 경험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내의 국제학교 2개교를 졸업하고 해외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들의 유학 생활 경험을 알아보고자 연구자는 앞서 기술한 Colaizzi의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자는 총 28개의 축어

<표IV-1> 의미 있는 진술, 이와 관련하여 명확히 나타난 의미의 예

의미 있는 진술	명확히 나타난 의미
의도적이었던 아니든 국제학교를 통해서 많이 성장하고 성숙해진 것 같아요. 특히 기숙사 생활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독립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생활하고 다른 사람들과 생활하는 것이요. 적어도 일정 부분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었어요.	기숙사 생활 - 독립적 생활 및 타인과 어울려 생활하는 방법을 익힘
저는 진짜 제주도가 너무 그리웠어요. 한동안이 아니라 저는 계속 제주도가 그리웠어요. 평소 생활할 때는 생각이 안 나지만 가끔 문득 문득 제주도가 그리워져요. 제주도가 집이기도 하고 국제학교 생활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국제학교 친구들도 그리워지고,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대학생활이 싫거나 안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제주도 생각은 계속 나요. 방학 때마다 항상 집에 가고요.	대학 생활을 떠나 고향이자 국제학교 생활을 한 제주도에 대한 그리움이 큼
제가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어진 기회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참 좋은 기회라고 느끼면 내 걸로 잡을 수 있도록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기회를 잡고 안 잡고는 본인이 정하는 거고 주어진 환경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기회를 알아보고 잡을 수 있는 능력
배움이라는 것은 교실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클럽 활동이나 외부 강의, 운동을 하면서도 익힐 수 있도록 능동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게 몸으로 익혔던 것 같아요	능동적인 사람 - 수업 외의 일상에서도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제가 다니는 대학교에서도 외부 강의, 수백 개의 클럽 등 등 넘쳐나는 기회들이 많은데 방에서 게임만 한다든지 하면서 기회들을 흘려버리는 학생들이 많아서 안타까워요.	자기관리의 중요성 -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하다.

록으로부터 82개의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제주 국제학교 졸업생들의 해외 대학 유학 생활 경험을 3가지의 범주로 구성했으며 학업경험, 문화적응 경험, 일상생활 경험으로 나누었다. <표IV-1>는 의미 있는 진술들을 통해 발견한 명확히 나타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표현한 예시이며, <표IV-2>는 앞서 발견된 명확히 나타난 의미와 관련된 두 가지의 주제군으로 묶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예시이다.

<표IV-2> 명확히 나타난 의미와 관련된 두 가지 주제군의 예

부모 및 가족과의 관계 - 외로움과 향수병	온전히 스스로 관리하는 자기 주도적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숙사 생활을 통한 독립적 생활 익힘 •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 • 부모님과 가족, 국제학교 시절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 • 특별한 이유 없는 외로움과 그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넘쳐나는 기회를 흘려보내는 것은 낭비 • 어디서든 배울 수 있는 자세의 능동적인 사람 • 기회를 잡고 안 잡고는 본인의 선택

위와 같은 분류 과정을 통해 발견된 범주인 학업 경험, 문화적응 경험, 일상생활 경험은 총 8개의 하위 단위인 주제군으로 묶어 분류 할 수 있었다. 상세한 범주와 주제 내용은 <표IV-3>과 같다.

<표IV-3> 연구 결과의 범주 및 주제

범 주	주 제
1. 학업 경험	1) 언어 사용에서 느껴지는 한계
	2) 숨이 차오르는 듯한 수업 적응 - 방대한 독서량과 기초지식 부족
	3) 국제학교 교육과정의 불완전한 이어짐 - AP와 IBDP 경험
2. 문화적응 경험	1) 비교적 손쉬운 문화 적응
	2) 상대적으로 치우친 교류 - 한국 또는 아시아계
3. 일상생활 경험	1) 부모 및 가족과의 관계 - 외로움과 향수병
	2) 온전히 스스로 관리하는 자기 주도적 삶

학업 경험의 하위 주제는 언어사용에서 느껴지는 한계, 숨이 차오르는 듯한 수업 적응 - 방대한 독서량과 기초지식 부족, 국제학교 교육과정의 불완전한 이어짐 - AP와 IBDP 경험으로 나뉘어 졌으며, 문화적응 경험은 비교적 손쉬운 문화적응, 상대적으로 치우친 교류 - 한국 또는 아시아계로 분류되었다. 마지막 범주인 일상생활 경험은 부모 및 가족과의 관계 - 외로움과 향수병, 온전히 스스로 관리하는 자기 주도적 삶으로 구성되었다.

1) 학업 경험

(1) 언어 사용에서 느껴지는 한계

제주특별자치도의 영어교육도시내의 국제학교들은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와 같은 특정 언어 과목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수업시간과 생활시간 동안 영어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 그리고 AP(대학과목선 이수제)와 IBDP(국제공동대학입학자격제도) 교육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대학 수학 과정을 상당 부분 준비해서 진학했으리라 연구자는 짐작했지만 예상외로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학문적 영어(Academic English) 사용 및 수업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제가 제일 당황스러웠던 점은 IB를 했고 고등학교 생활도 계속 내내 영어로 수업하는, 외국은 아니지만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현지와 비슷한 환경에서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대학을 오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공부해야 하는 양도 훨씬 많고 좌절했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비슷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IB로 준비하면서 철저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체감한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언어적 부분과 학문적 부분이 훨씬 어렵다는 거였어요. 특히 언어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여기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은 원어민을 따라 잡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게다가 대학 자체가 공부를 잘한다는 사람들만 모인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더라고요. 점수도 잘 안 나오고.. 고등학교(국제학교)때 성적을 너무 쉽게 받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학점이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았어요.

(연구 참여자 H, 2차면담, 영상통화, 2019년 3월 26일)

연구 참여자 H는 국제학교에 재학하는 기간 동안 IB과정을 이수했고 해외 거

주 경험도 있었기에 대학 진학 후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입학 후 첫 학기동안 언어와 학업문제로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전했다. 게다가 연구 참여자는 북미지역에서 상위권으로 평가되는 대학에 진학을 해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주변의 원어민 학생들과의 비교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허무감이 컸던 것으로 보였다. 다음은 연구 참여자 F의 면담 내용이다. 연구 참여자 F 역시 학문적 언어의 어려움을 가장 큰 장벽으로 느꼈다.

대학교 와서는 강의 때 교수님이 주루룩 수업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노트에 한 단어도 몇 주 동안 못쓰겠더라고요. 수업 중에 말하는 내용이 귀에 안 들리고 뭐라고 하시는데도 모르겠고 수업 적응 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또 학생들 대부분이 백인들이거나 교포 2세 이런 경우가 많아서 영어사용이 너무 수월한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그 친구들보다 성적이 나오지 않으니까 회의감이 많이 들었어요. 언어에서 온 어려움이 가장 컸어요.

(연구 참여자 F, 1차면담, 일반통화, 2019년 2월 17일)

연구 참여자 F는 북미지역에서 백인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대학을 진학했다.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영어로 수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제학교 입학 전 해외에서 공부한 경험도 있었지만 학문적 언어 사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초기 적응 기간이 많이 힘들었고 이렇게 하다가 졸업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 경험도 있었다고 전했다.

연구 참여자 E 역시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E는 아시아 국가의 대학으로 진학을 했는데 해당 국가에서 영어가 공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악센트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다.

처음엔 수업내용과 말을 알아듣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일상생활에서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수업 시간에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다시 물어봐야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생기고 했어요. 간혹 녹화된 강의를 보거나 할 때 악센트가 강한 교수님 수업이거나 하면 더 어렵게 느낀 경우도 있었어요.

(연구 참여자 E, 1차면담, 일반통화, 2019년 3월 27일)

Hakuta, K.(2011)는 연구를 통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학생에게 있어서 학문적 언어의 부담은 단일 워크샵과 같은 간단한 강의 등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수년간의 양질의 학습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비록 국제 학교를 졸업한 연구 참여자들도 마찬가지로 비교적 긴 시간동안 국제학교에서 영어로 수업을 수강했지만 대학 진학 후에도 여전히 학업적 언어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다.

(2) 숨이 차오르는 듯한 학업 적응 - 방대한 독서량과 기초지식 부족

학업적응이란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대학이 요구하는 학업 과제에 대해 자신을 변화시키고 때로는 자신에게 필요한 환경을 요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민진영, 2013). 기존의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도 학업 적응은 대학 생활 적응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인식하고 있다(금명자, 남향자, 2010; 김명찬, 2013). 연구 참여자들 또한 학업 적응을 대학 생활 적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국제학교에서의 서양식 교육 경험이 학업적응을 상대적으로 도와준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다.

국제학교 다니면서 토론위주의 수업이나 발표 같은 거에는 익숙해져 있었어요. 가까이 지내는 언니 중에 정말 일반계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다가 얼마 전에 제가 있는 학교로 편입을 한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의 적응 과정을 보면 확실히 저는 나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수업시간에 참여도를 중시하고 토론도 자주하고 하는데 언니는 수업시간동안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하다 틀리면 어떻게 하냐고 하기도 하고 수업을 중간에 끊는 것 같다고 하면서 거의 참여를 못하더라고요. 교수님도 따로 불러서 문제가 있냐고 물을 정도니까요. 그에 비하면 저는 수업 적응 쪽은 수월했다고 봐야죠. 여전히 따라가야 할 분량도 많고 하지만 저는 토론 참여나 수업 참여가 겁나지는 않거든요.

(연구 참여자 C, 1차면담, 일반통화, 2019년 5월 16일)

연구 참여자 C의 지인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면 편입 후 대학 생활은 당황스러움과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연구 참여자 C는 적응을 수월하게 한 것으로 보여진다. 국제학교는 교육과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성적을 부여한다. 시험을 기본으로 개인 과제, 조별 과제물, 수업 참여도, 토론, 포트폴리오 등 단순한 점수 매기기가 아닌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고 준비하는가를 중요시 여기는 분위기 이다. 그렇다 보니 연구 참여자 C는

대학교 수업에서도 스스로없는 의견 개진이나 토론 참여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 적응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공부나 수업 적응 부분은 일단 전체적인 시스템이 국제학교와 많이 비슷해요. 다만 학교에서 설명이나 도움이 많지 않아요. 저희가 직접 발 벗고 뛰어다니면서 정보를 알아봐야 하고 신청 같은 것도 제가 주변에 물어보고 해야 해서 제가 놓치거나 하면 때를 놓쳐서 기회를 많이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 고생이 많았어요.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이런 게 있다~ 하면서 종이만 엄청 주고 건물 찾는 것도 다 알아서 해야 하고 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학교가 학생들을 키우는 것 같아요(웃음). 그리고 유학생이다 보니까 네이티브 학생들처럼 빨리 빨리 적응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교수님에게 수업 내용을 녹음해도 괜찮을지 여쭙보고 집에 와서 녹음 된 내용 다시 들어보고 하면서 처음에 적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들었어요. 시험도 교과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강의 내용이 시험에 많이 나와서 수업을 놓치면 안 되는 상황이라 더 긴장했었어요.

(연구 참여자 G, 1차면담, 영상통화, 2019년 4월 21일)

연구 참여자 G는 학교 시스템 자체는 국제학교와 비슷해서 큰 어려움은 느끼지 못했지만 대학에서 상세한 안내가 없어서 힘들었던 경험과 수업 내용을 놓쳐서 번거로웠던 경험을 이야기 했다. 다른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에도 학업 적응 관련된 경험을 얘기하며 중요한 요인들로는 독서량과 기초지식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1학년 수업에도 당장 읽어가야 하는 양이 너무 많은데 약간 제가 시간 내에 읽여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배경 지식 문제였던 건지 읽어도 이해도 안 되기도 했고요. 당장 교과서뿐만 아니라 봐야할게 다른 자료들도 너무 많았어요. 방금 전 읽은 부분 이지만 다시 두 번, 세 번 곱씹어 가면서 다시 생각해 보고나 읽어야 했어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H, 2차면담, 영상통화, 2019년 3월 26일)

연구 참여자 H는 2차면담에서 대학에 진학함과 동시에 교과서 외에 읽어야 할 내용들이 방대하게 증가 했고 기초지식 부족으로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읽기 능력은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며 다양한 정보, 아이디어(혹은 철학)에 접

근이 가능하게 하기에, 독서력은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는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도구이다(박혜숙, 원미숙, 2010). 국제학교에서도 읽기 능력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학생들의 읽기 능력 향상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연구자는 제주도내 국제학교에서 근무 경험이 있으며 근무 기간 동안 1년 가까이 외국인 도서관 사서와 함께 도서관 지원 업무를 맡은바 있다. 그때 당시 경험에 비춰보면 학생들은 적어도 한 학기동안 2회 이상 읽기 능력(reading level)관련 테스트를 하고 영어 과목에서는 필수 도서를 정해서 수업시간에 교과서 외에도 해당 도서의 내용과 구조 등을 이해하고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학생들의 특정 언어 과목을 제외하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는 모두 영어로 되어 있는 원서이기도 하다. 하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독서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다.

국제학교를 입학하고 다니면서 크게 어려웠다고 느낀 부분은 없었어요.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도 그렇고 기숙사 생활도 별 탈 없이 지나갔는데 대학교 들어가는 수업 준비를 하면서 읽어야 할 내용이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대학교 입학한 다음에 첫 학기 때에는 성적을 잘 받으려고 일부러 쉬운 과목을 골라서 들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쉬운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읽어야 할 내용은 그래도 방대할 정도로 많았어요. 그리고 국제학교에서 대학교에 지원할 때 무조건 좋은 대학, 상위 대학만 목표로 삼아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대학교 와서 전공 선택하는 부분이나 실제로 교육의 질이 저랑은 맞지 않아서 더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D, 2차면담, 영상통화, 2019년 3월 26일)

해외 대학의 1학년 수업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국내 대학 과정처럼 교양 과목을 수강하는데 전공과목보다 상대적으로 독서량도 적고 수업의 깊이가 깊지 않았지만 배경 지식 또는 기초 지식의 한계를 느끼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경험을 이야기 했다. 학년이 올라가고 학기가 지날수록 점차 적응해 나갔지만 연구 참여자 D는 대학 입학 초기에 항상 숨이 차오르는 기분이었다고 이야기 하며 대학 입학 지원당시 전공이나 본인의 적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상위 대학 진학으로만 목표를 삼다보니 실제 대학 생활에서는 적성이나 교육의 질 등이 맞지 않아 현재 편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구 참여자 E도 수업 적응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 D와 비슷한 경험을 전했다.

고등학교(국제학교) 때와 다루는 양이나 진도를 나가는 속도에서 큰 차이가 나서 크게 당황했어요. 지금도 적응을 약간 했지만 그래도 해야 할게 너무 많아서 공부에 있어서 완전히 달라진 듯해요. 교과서 위주로 수업하다보니까 따라가려면 교과서를 정독해야 하는데 양도 많고 내용도 어려워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모자라다고 느낄 때가 많았어요. 일상 영어가 아니라 학업적 영어라서 바로 따라 잡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연구 참여자 E, 1차면담, 일반통화, 2019년 3월 27일)

연구 참여자 C는 독서량이 국제학교 재학 당시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날 만큼 늘었다고 전했으며 현지의 학생들에게는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되는 지식들이 본인에게는 새롭게 익혀야 하는 지식들이라서 초기에 적응이 어려웠다고 전했다.

모든 학생들이 느낄 것 같은데 독서량이 정말정말 많이 늘었어요. 고등학교(국제학교)에서는 1년 치 2~3권? 책 읽고 수업을 할 때도 내일 까지 못 읽는다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고 선생님이나 친구들도 도와주고 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대학교 와서는 한 과목 당 적어도 하루에 20~30페이지를 무조건 읽어야 하고 그 분량만큼 하루 수업 진도를 나가고 그걸 놓치면 계속 놓치는 게 쌓이는 거라서 독서량이 계속 쌓였던 것 같아요. 수업 따라가는 것도 과목마다 다르기는 한데 경제 과목 같은 경우는 제가 고등학교 때 IB를 해서 그런지 오히려 다른 친구들 보다 기초지식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정치랑 철학 과목은 과목으로서 이 수업들을 배워보는 건 처음이라서 약간 미국 애들은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말을 했다'라는 기본적인 걸 알고 있는데 저는 이름은 아는데 뭘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는 이런 상황이 많았던 것 같아요.

'중략'

특히 미국 정치 얘기를 할 때는 특히 더 소외감 든 것 같아요. 최근에 선거제 관련해서 수업을 하는데 우리나라랑 선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만 해도 우리나라는 직선제로 이해가 쉬운데 미국은 `방식이 달라서 별도로 확인을 해야 했어요. 이런 부분 같이 미국인들에게는 기본 지식이고 상식인데 저에게는 생소한 부분이었어요.

(연구 참여자 C, 1차면담, 일반통화, 2019년 5월 16일)

Bransford와 Johnson(1972)은 읽고 있는 글의 이전 문맥의 존재 여부에 따라 독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으며 특히 익숙하지 않은 글을 읽을 때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독해 이해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배경지식이

라고 주장했다. 즉 배경지식 여부에 따라 읽고 있는 글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 이다. 연구 참여자 C의 경험처럼 기초적인 배경지식이 없거나 모자라다고 느낄 때 독해는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연구 참여자의 대학 수업 적응에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 진다.

(3) 국제학교 교육과정의 불완전한 이어짐 - AP와 IBDP 경험

제주도 영어교육도시내의 국제학교들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교육과정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 중 5명이 졸업한 Korea International School, Jeju Campus에서는 AP(대학과목선 이수제, Advanced Placement) 교육과정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채택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그 외 연구 참여자 3명이 졸업한 Branksomehall Asia의 경우 IBDP(국제공동대학입학 자격제도, 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me)를 고등교육과정에 도입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AP는 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는 일부 과목을 고등학교 과정에 선이수하여 대학 진학 후 학점을 인정받거나 기초 과목을 건너 뛰고 상위 과목을 수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IBDP는 AP 과정과 비슷하게는 대학 학점 선이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양질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대학 교육 과정에 보다 준비된 학생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라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일선 학교에서 IB프로그램 도입하는 과정부터 이수하는 과정 및 시험과 같은 모든 부분들을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에서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다.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AP 교육과정과 IBDP 교육과정이 대학 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력은 미치고 있다고 공통적으로 언급했지만 연구 참여자가 진학한 대학교가 위치한 지역과 대학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먼저 연구 참여자 G는 국제학교 재학당시 이수했던 AP 과목 덕분에 상위 과목을 바로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며 실제 수업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전했다.

대학교 와서 국제학교에서 들었던 AP 수학, 화학, 생물 과목들은 인정이 돼서 해당 과목들은 기본 수업을 안 듣고 상위 과목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

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전공이 Biology(생물)인데 General Biology(일반 생물) 과목을 들었는데 국제학교에서 AP Biology를 들어서 전에 공부를 해 봤었기 때문에 그런지 이해가 쏙쏙 되고 덕분에 그 수업을 수월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어요. 한번 들었던 수업을 다시 듣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AP 영어 수업 중에 AP Literature&Language(문학과 언어)를 들을 때 책을 엄청 읽었거든요. 시험 준비 하라 추천 도서도 있고 해서 대학 와서 수업 준비할 때나 친구들과 얘기할 때도 '나 그 책 읽어봤어!' 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G, 다자통화, 그룹인터뷰, 2019년 5월 14일)

이와는 반대로 AP 교육과정이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의견을 전한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아무래도 AP 과정 자체가 미국 내 대학 진학에 초점이 맞춰진 수업이다 보니 미국 내 대학으로 진학을 하지 못할 경우 대학 입시 과정에서 가산점을 받기 어렵거나 대학 진학 후 학점 인정을 받지 못하는 등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었다.

국제학교에서 AP를 수강했던 부분이 수업 적응에 도움이 되긴 했지만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는 AP를 인정을 안 해줬어요. AP 점수를 괜찮게 잘 받은 과목들이 있었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하나도 쓸모없어졌어요. 미국 학교로 진학을 했으면 학점을 인정을 받아서 높은 레벨의 수업을 받을 수 있거나 수업 면제를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연구 참여자 A, 2차면담, 일반통화, 2019년 5월 14일)

제가 다니는 대학교가 영국식 IB를 바탕으로 하는 곳이라서 AP 학점 인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AP로 받았던 과목들이 제 지금 전공과 접목이 되지 않아서 큰 도움도 되지 않았고요. 사실 대학교를 잘 가려고 AP 과목들을 들었던 부분이 커서 수업 내용이 잘 기억나지도 않아요. 제가 유일하게 흥미 있게 관심이 있어서 들었던 수업은 AP US History(미국사)인데 지금 있는 지역이 미국이 아니라서 크게 도움 되지도 않네요. 뮤지컬 볼 때 미국 역사 관련된 것을 알아서 좋기는 한데..(웃음) AP Calculus(미적분학) 수업은 그래도 수업에 도움이 되긴 한 것 같아요. 국제학교 시절을 되돌아서 생각해보면 제일 아쉬운 부분이 AP 수업이에요. 이 과목이 좋다고 하면 다 같이 우루루~ 듣고 제가 듣고 싶고 관심 있는 과목이 아니라 이 과목은 좋다더라! 이러면 다 몰려서 듣고 했던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B, 다자통화, 그룹인터뷰, 2019 5월 18일)

연구 참여자 A와 연구 참여자 B는 미국으로 대학을 진학 하지 않고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로 대학을 진학 했다. 해당 국가가 과거부터 영국이나 유럽 국가의 영향을 보다 많이 받았던 지역이었으며, 미국의 대학위원회가 주관하는 AP 교육 과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 A와 연구 참여자 B 모두 AP 과목으로 이수한 과정 중 특정 과목이 대학 수업 적응에 도움을 받았다고 언급하기는 했지만 학점 인정과 같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특히 연구 참여자 B는 현재 전공과 연관이 없는 과목들을 이수해서 아쉬움을 느꼈다고 이야기 하며 국제학교 재학 당시, 적성이나 장래의 전공과 관련 없이 주변에 휩쓸려서 AP 과목을 선택했던 부분을 가장 아쉽다고 손꼽았다. 국제학교에서 학생의 적성이나 흥미에 맞춘 수강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부분으로 보여 진다.

저는 10학년으로 국제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에 입학과 동시에 IBDP로 시작했어요. 난이도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후회를 하기도 했어요. 도대체 무슨 득을 보려고 IB를 하고 있나 생각도 했어요.

(중략)

IB 수업을 들을 때에는 선생님이 앞에 계시면서 큰 역할을 하시지 않고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토론 방식이나 직접 주도하는 수업이 많았어요. 반면에 대학교에서는 교수님이 강의 형식으로 일방적으로 전달을 하는 방식이어서 그런 부분에 차이점이 있었어요.

(연구 참여자 F, 1차면담, 일반통화, 2019년 2월 17일)

제 전공이 IB때 들었던 과목들과 관련이 없어서 학점인정이나 별다른 혜택을 못 받았어요. 만약 제가 지금 전공과 같은 과목으로 들었다면 1학년 수업을 건너뛴 수도 있었어요. 과목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필수 과목이나 주요 과목은 IB 수업으로 들었던 학점을 대체를 하고 그 과목을 건너 뛴 대신에 다른 교양 과목을 듣거나 할 수 있었는데 저는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연구 참여자 F, 그룹인터뷰, 다자통화, 2019년 6월 4일)

연구 참여자 F는 시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을 중요시 하는 IBDP로 고등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학생들의 주도성을 강조하는 IB 교육 과정과 반대로, 많은 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이어가야 하는 대학교의 수업 환경이 달라 IB 교육 과정을 통한 경험이 수업 적응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의 전공과 관련이 없는 IBDP 과목들을 수료하다보니 학점 인정 또한 받지

못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 C는 대학교 수업 방식과 IB 교육 방식이 달라 별도로 수업 적응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연구 참여자 F와 같지만, 현재 대학교 전공과 관련이 있었던 과목, 특히 Economics(경제) 과목의 예를 들면서 학업적 영어 부분도 미리 익혔고 IBDP 특유의 학생 주도의 수업과 토론 과정을 경험하면서 지금의 대학 수업을 많이 수월하게 이수할 수 있었다. 또한 AP과정을 이수한 다른 연구 참여자들과는 반대로 IB 교육과정을 다방면으로 인정하고 있는 유럽 국가나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로 진학하지 않고 북미지역으로 진학했지만 IB 과정을 통해 이수했던 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아 상위 과목으로 바로 수강할 수 있었던 장점을 이야기 했다.

IB(IBDP)는 어려웠어요. 수업 진행도 선생님이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면 안을 채워가는 건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수업 준비도 많이 해야 했고 시험 자체도 어려웠어요. 대학교에서는 수업 방식 자체가 조금 달라서 수업 적응?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렵게 IB를 끝낸 만큼 남는 건 있었어요. 제 지금 전공이 경제, 정치, 철학을 함께 트랙으로 묶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고등학교(국제학교)에서 들었던 Economics(경제)과목을 예를 들자면 미리 경제 수업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라든가 기본적인 배경 지식들을 미리 쌓아놓은 상태여서 대학교에서 들은 경제수업은 쉬웠어요. 정말 수월하게 학기를 끝냈어요.

(연구 참여자 C, 1차면담, 일반통화, 2019년 5월 16일)

아쉬운 점은 제가 다니는 대학교에서는 AP는 보통 5점 만점에 4~5점이면 바로 중간 레벨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IB는 Higher level과 Standard level중에 반드시 Higher level로 7점 만점에 7점을 받아야만 학점 인정을 해줬어요. 저는 경제 과목을 7점을 받아서 미시경제, 거시경제 같은 기본 과목을 모두 건너뛰고 상위 경제 과목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약간 IB쪽을 인정을 받기가 어려운 형태였지만 결과적으로 인정은 AP와 동등하게 받았어요. IB가 AP보다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게 더 낫은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C, 그룹인터뷰, 다자통화, 2019년 6월 4일)

Wray(2013)는 영국 A-level(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Advanced Level)를 이수한 학생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IBDP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교육 과정을 통한 학습 만족도가 A-level 이수 학생들보다 높았으며, IBDP 이수 학생들은 학습 경험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IBDP 과정

으로 국제학교를 졸업한 연구 참여자에게는 학습 만족도나 학습 경험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전공과 관련되지 않거나 IBDP 테스트에서 최고점을 받지 못할 경우 학점 인정을 받지 못하는 등 부분적인 영향만을 주고 있었다. 그리고 Geiser와 Santelices(2004)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University of California(UC)-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신입생 81,44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고등학교 때 수강한 AP 과목에 대한 AP 시험에서의 성적은 대학 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연구를 통해 밝혔지만 이 역시 AP 교육과정의 경우는 특히 더 연구 참여자가 재학하고 있는 대학교의 지역과 환경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져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2) 문화적응 경험

(1) 비교적 손쉬운 문화 적응

새로운 교육적·사회적 환경에 대한 적응은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이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대학에서의 학업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여기에 유학생들은 문화적인 충격까지 덧붙여 모국에서 생활하는 일반 학생보다 더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임수진, 한규석, 2009). 해외 유학생들에게 문화 적응 과정은 학생들의 스트레스나 불안 레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Fritz M 외, 2008), 높은 문화 적응 스트레스 수준을 보이는 학생들은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인다는 연구가 보고 되기도 한다(Bissram J, 2015). Brusting N, Zachry C, Takeuchi R(2018)의 문헌 연구 논문에서는 30개의 논문이 미국 내 해외 유학생들의 심리학적 부적응 사례들을 보고했는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가장 흔하게 보고된 부적응 사례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국제학교 졸업생들과의 면담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문화 적응에서 선행 연구 결과들과는 다르게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공통적으로 얘기했다.

사실 의외로 문화적인 차이에서 온 어려움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있는 지역이 아시아 국가이기는 하지만 문화도 서구적인 문화가 많이 정착이 되어 있

고 지역 자체가 영국 식민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미국 문화나 다른 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수용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미 국제학교에서 미국 문화에는 익숙해져 있기도 했고 해서 문화적 차이로 힘들진 않았어요.

(연구 참여자 A, 1차면담, 대면면담, 2018년 12월 17일)

백인이 80%정도 되고 동양계도 15%는 중국인이고, 아무래도 백인이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문화차이는 제게 와 닿을 만큼 있지는 않았어요. 저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이해하는 게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학교 구성이 순수 캐나다 학생들이 많은 편이라 더 문화 적응 부분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F, 1차면담, 일반통화, 2019년 2월 17일)

연구 참여자 A는 아시아 지역으로 대학 진학을 했으며 연구 참여자 F는 북미 지역으로 대학을 진학하면서 두 참여자의 지역적 특색이나 문화가 많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문화 적응에 따른 어려움은 느끼지 못했다고 전했다. 연구 참여자 E 또한 다른 참여자들과 마찬가지로 문화 적응에서 온 어려움은 없었다고 전했으며 국제학교에서 받은 서양식 교육이 타 국가 문화 및 대학 적응에 영향을 주었다고 언급 했다.

문화적인 차이는 크게 못 느꼈어요. 나라 안에서도 사람들마다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해서 다 다른데 심지어 해외로 넘어 온 상황에서 문화적 차이나 이런 거는 쉽게 이해를 했어요. 제 생각에는 학교(국제학교)를 다니면서 서양식 교육을 받아서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문화 적응 이런 부분에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긍정적인 방향으로요.

(연구 참여자 E, 2차면담, 일반통화, 2019년 3월 27일)

Straffon(2003)은 국제학교의 학생들은 언어, 다양한 관점 및 이문화 간 이해 등을 재학 기간에 익힐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연구 참여자 E는 서양식 교육에서 온 가치관 변화뿐만 아니라 문화 적응과정 등을 통해서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있다는 성취감도 느낀다고 긍정적인 반응도 내비쳤다.

기존 선행 연구에서는 해외 유학생들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부적응 사례를 다수 보고 하고 있지만 국제학교 졸업생들은 타 국가나 지역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문화적, 언어적 배경으로 인해 국제 학교 학생들은 국제학교 재학 기간 동안 이 문화 교류의 중심에서 생활하는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때때로 어느 한 국가나 문화의 외부인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공간, 성격, 문화적 유동성과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언급한 Straffon(2003)의 내용을 뒷받침 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2) 상대적으로 치우친 교류 - 한국 또는 아시아계

앞서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국제학교를 졸업하고 해외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들은 문화 적응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적 교류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봤는데 사회적 교류에서도 큰 어려움을 느끼는 연구 참여자들은 없었다. 연구자의 대학 진학 후의 교우 관계와 관련된 질의에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 학생들과 주로 어울리고 한국계 학생이 없거나 적은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아시아계 특히 중국이나 일본 출신 학생들과 많이 어울리고 있다고 답했다.

저희 학교가 작은 편이라서 봤던 친구들을 또 보고 하는 상황이 많아요. 사실 백인 친구들은 많지 않고 아시아계 계통 친구들인데 혼혈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게 됐어요. 흑인 친구도 조금 있고요. 백인 친구들이랑 가까이 지내기에는 문화적 차이가 좀 크게 느껴져요. 그리고 제가 다니는 학교는 한국인이 다 해보야 10명 정도 밖에 안돼요. 혼혈 친구들도 엄마가 태국인이고 아빠가 미국인인 친구도 있고 아빠가 중국인, 엄마가 미국인인 친구도 있고. 혼혈인 친구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 이랑도 오히려 잘 어울리고 완전히 아시아인은 아니지만 아시아 쪽 문화와 미국 문화를 다 포용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랑 더 가까이 지내는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C, 1차면담, 일반통화, 2019년 5월 16일)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C는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 한국인 비율이 낮고 전공 등도 달라서 한국인 보다는 같은 전공 내에서 아시아 문화와 미국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포용해줄 수 있는 혼혈 친구와 가까이 지내고 있었다.

외국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지만 그게 굉장히 이상적인 일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외국 대학에 오면 누구든지 외국 친구 사귀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외국 친구를 사귀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연구 참여자 H, 2차면담, 영상통화, 2019년 3월 26일)

위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 H가 2차면담 당시 이야기 한 내용이다. 학생들은 외국인과의 교류를 딱히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비록 일상 회화나 생활에 어려움은 크게 느끼지 않지만 모국어(한국어)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가 있는데 굳이 외국어로 대화하면서 친구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연구 참여자 G는 학교 내 기숙사가 아닌 학교 외부에서 몇몇 친구들과 함께 자취를 하고 있는데 함께 지내고 있는 친구들도 재미교포들이며 문화 적응에서 큰 문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다소 개인주의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서양 친구들 보다는 아시아계 학생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었다.

제가 내성적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친구들과 교류도 한국 친구들이 더 많은 편이고 중국 친구들도 있고 백인들은 수업들을 때 정보 교환이나 그룹 프로젝트 할 때만 연락을 하고 평소에 사적으로 만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결국에는 동양 친구들이 편해요. 문화적인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백인들은 저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깊은 속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겉핥기식의 대화는 잘 하는데 감정적인 내용을 얘기하거나 하지는 못해요

(연구 참여자 G, 1차면담, 영상통화, 2019년 4월 21일)

연구 참여자 D도 2차면담에서 연구 참여자 H와 연구 참여자 G와 비슷한 맥락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여전히 같은 학교(국제학교)를 졸업한 친구들과 가깝게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고등학교 친구들과는 말하기 어렵거나 마음속의 깊은 이야기도 쉽게 나눌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전했다.

한국에서 온 친구들 외에 외국친구나 재미교포랑은 안 어울리게 되더라고요. 정확히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한국 친구들과만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고민이 있거나 뭔가 감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같은 지역이나 대학교를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같이 국제학교를 나온 친구들과 연락을 하게 되고 지금도 국제학교 친구들과 계속 꾸준히 연락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과 교류를 할 이유도 딱히 없어서 자연스럽게 한국 친구들과 어울

렸어요.

(연구 참여자 D, 2차면담, 영상통화, 2019년 3월 26일)

국제학교를 함께 졸업한 친구들과 지속적인 연락은 연구 참여자 E도 유지 하고 있었다. 이유 또한 마찬가지로 고민을 나누기에는 대학 친구보다 국제학교를 함께 다니고 오랜 시간 교류해온 친구들이 훨씬 편하기 때문이었다. 연구 참여자 E는 위의 두 학생과 반대로 외국인 친구와의 교류를 굳이 필요하지 않은 일로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외국인 친구들과 교류를 희망했지만 자연스럽게 한국인 친구들과 교류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지금 여기서는 고등학교 친구만큼 가까운 사이의 사람이 없어서 고민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아쉬워요. 한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외국 대학까지 왔으니까 기왕이면 해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만나다 보니까 한국인들 만에 통하는 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 친구들을 주로 만나고 찾게 되더라고요. 언어도 굳이 영어로 말하지 않아도 되고 해서 아무래도 한국 친구들을 더 자주 봐요.

(연구 참여자 E, 1차면담, 일반통화, 2019년 3월 27일)

해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더라도 위 내용과 같은 연구 참여자들의 한국 유학생 또는 아시아계 유학생들과 교류가 더 많고 편안함을 느꼈는데 직접적으로 국내의 국제학교 졸업생의 타 국가 출신 학생들과의 교류 관련 직접적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이와 비슷한 맥락의 내용을 기존의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한 예로 Brown(2009)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해외 유학생들은 같은 국가 또는 같은 지역의 유학생들과의 교류를 선호한다는 내용으로, 해당 연구는 잉글랜드 남부 지역의 해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유학생들은 같은 국가 출신의 학생들과 어울리고자 하는 욕구와 필요를 느끼고 있었는데 이는 언어나 문화 동질감 등에서 오는 편안함을 얻고자 하는 이유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한국 유학생들의 경우 유학 생활 중 같은 민족 집단 성원들을 만나면서 민족 소속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김현경, 2012).

이와는 반대로 연구 참여자 A는 다른 연구 참여자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인과

아시아계 친구들과의 교류가 많기는 하지만 다양한 인종과 국적의 학생들과 교류를 맺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는 한국인 친구들이 많아요. 많기는 한데 저는 일부러 외국인 친구들도 만나려도 해요. 그래도 외국에 나왔는데 한국인들 하고만 교류하는 게 뭔가 놓치는 것 같아서 국가나 인종을 떠나서 다양하게 교류하려고 노력해요. 지금 다니는 학교가 현지 학생이나 아시아계 학생들이 많기는 하지만 다양한 곳에서 온 교환학생들이 많아서 다양한 인종들이 있어요. 유럽에서 온 학생들도 많고요. 저는 보통 축구 통해서 친해지는 것 같아요. 국제학교에서 축구팀 클럽 활동을 했는데 운동자체가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어울릴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더 친해지는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A, 2차면담, 일반통화, 2019 5월 14일)

연구 참여자 A는 국제학교 재학 당시 축구팀이나 육상팀으로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다. 그 이후에도 축구나 육상과 같은 운동을 즐겨하고 있는데 운동을 매개로 한 교우관계의 확장이 다른 연구 참여자에 비해 수월했던 것으로 보인다.

3) 일상생활 경험

(1) 부모 및 가족과의 관계 - 외로움과 향수병

연구자도 해외 유학 기간이 2년 정도 있었다. 그 시기에 가장 힘들었던 일을 꼽자면 단연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서 오는 외로움이었다. 연구 참여자들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다. 부모와 가족과의 물리적인 거리 및 시차 등으로 힘들거워 하는 정도에는 연구 참여자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외로움은 느끼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B의 경우에는 국제학교 재학 당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부모님과 떨어져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대학교에 진학하고 해외로 이주하면서 생긴 부모님 특히 어머니와의 물리적인 거리차이가 더욱 크게 느껴졌다고 했다.

저도 제가 큰 문제없이 적응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숙사 생활도 오래 했고 그 시간 동안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기숙사에 있을 때 휴대 전화를 사용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스के

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집에 전화를 걸 때 항상 통화가 이뤄졌거든요. 엄마가 학교 일과를 다 알고 계셨으니까요. 저는 모든 결정을 하기 전에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와서 깨달은 게 엄마랑 거리가 생기고 나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를 엄마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처음에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몰랐어요. 항상 엄마가 옆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저 부분은 이렇게 정해라 하고 코치를 해주셨고 엄마가 말해주신 그대로 하면 어렵지 않게 길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엄마 말씀을 따라서 항상 결정해 왔는데 그 사이에 시차가 생긴 거예요. 시차는 크지 않았지만 제가 전화하고 엄마하고 얘기하고 싶을 때 바로바로 할 수 없었다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B, 1차면담, 대면면담, 2018년 12월 26일)

특히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국제학교 졸업생 중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고 부모님과 집에서 거주하면서 학교로 통학을 했던 연구 참여자 E는 한국과 집을 떠나보면서 심리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고 토로했다. 대학 진학과 동시에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게 되면서 때때로 찾아오는 외로운 감정과 우울감 등을 그 예로 들었다.

태어나서 부모님과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지낸 적도 없었고, 뭐 한달 정도 방학 때나 이럴 때 캠프에 간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타지에 있어 봤던 적이 없었죠. 1학년 때 대학교에 입학 하면서 개강 전에 해외로 넘어 왔는데 짐 풀면서 외롭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오자마자 바로요. 짐 풀다가 외롭다고 느꼈어요. 입학한 뒤 개강 첫 2주가 생각보다 집 생각도 많이 나고 부모님의 빈자리가 제일 크게 느껴졌어요. 학기 시작하고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중간에 그래도 가끔 가끔씩 생각나고 보고 싶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갑자기 우울해지는 날도 생겼고 '내가 여기서 뭐하는 걸까?'처럼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이 늘었어요.

(연구 참여자 E, 1차면담, 일반통화, 2019년 3월 27일)

그 외에도 향수병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한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부모님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지만 막연하게 한국 음식과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감정을 자주 느꼈고 국제학교를 함께 졸업했던 친구들과도 소셜 네트워크나 모바일 메신저 등에서 비슷한 감정과 내용을 서로 공유하면서 향수병을 느꼈다고 전해줬던 연구 참여자 D의 이야기와 부모님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함께 느낀

연구 참여자 G의 이야기다.

한국음식 먹고 싶다.. 한국 돌아가고 싶다.. 고등학교(국제학교)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친구들(국제학교를 함께 졸업한 친구들)과 많이 했어요. 향수병이 이런 거구나 하고 느꼈어요. 한국을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것도 여기서 지내긴 잘 지내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단순히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은 그냥 계속 든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D, 2차면담, 영상통화, 2019년 3월 26일)

처음에는 국제학교에서 기숙사 생활도 했으니까 향수병이 오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학 와서 1학년을 보내면서 기숙사 1인실에 살고 있었는데 주변에 다 외국인이고 미국 유학이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외로움을 탔어요. 향수도 오고 부모님 보고 싶고 그러다가 차츰 적응이 되고 연락을 자주 안하게 되고 3학년 돼서는 또 자주 생각이 나서 연락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확실히 미국에 있으니까 한국도 그리고 가족도 그리고 한 것 같아요. 밥도 한국 식당이 있긴 한데 종류가 한국처럼 다양하지 않으니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 생각 날 때는 가서 먹고 있어요. 1학년 1학기 끝나고 한국 갔을 때는 한국음식 진짜 많이 먹었고요.

(연구 참여자 G, 1차면담, 영상통화, 2019년 4월 12일)

많은 해외 유학생들에게 초기 적응 관련하여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엔 향수병이 자리 잡고 있다. 향수병은 해외 유학생뿐만 아니라 미국의 내국인 대학생들에게도 큰 문제로 다가오며 기존의 정서적 문제와 불안 장애를 악화시키고 새로운 정신적, 육체적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때때로 학교생활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한다(Thurber & Walton, 2012). 일부 연구 참여자들도 기존에는 없었던 우울증상이 나타나거나 불안한 모습이 나타났던 경험을 이야기 했다.

(2) 온전히 스스로 관리하는 자기 주도적 삶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전에 비해 보다 자율적인 환경에 놓이게 되면서 학업과 일, 여가시간 등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시간을 잘 분배하고 활용하는 시간관리 능력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된다(박해준, 안도희, 2018). 연구에 참여한 제주 국제학교 졸업생들은 비교적 짜여진 계획안에서 생활하고 교육 받았던 국제학교를

졸업하고 해외 대학에 진학하면서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이끌어 가는 생활에 대해 이야기 했다. 국제학교에서는 대학 생활을 미리 준비하고 자율적인 자기 관리 능력을 키우기 위해 특정 학년에 되면서부터 개별 학생의 자유 시간 관리나 개별 빨래를 본인이 직접 하도록 하는 등의 자기 관리 책임감을 갖도록 지도하고 있다. 국제학교에서 기숙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하교 시간 이후 일과 시간 중에 일정시간을 본인이 원하는 데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시간을 제공받는다. 학생들은 자유 시간을 이용해 부모님과 연락하거나 부족한 학업을 위해 사용하기도 하며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휴식의 시간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생활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교에 진학하며 학업적, 사회적, 문화적 적응과정을 거치며 적응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간 관리와 자기 주도적 학습, 생활 계획 세우기 등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먼저 연구 참여자 A의 면담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학교 생활에서 익힌 ‘기회는 찾는 사람에게 온다.’라는 신념이 대학 생활 적응과 자기 관리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 했다.

제가 학교(국제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기회는 찾는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클럽활동이라든가 운동, 음악 이런 거는 학교에서 강제로 시키지는 않잖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게 되고 뜻이 없으면 안하게 되고 그런데 봉사활동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나름 제가 다녔던 국제학교에서는 다른 학교들과 비교해서 다른 학교에서는 주지 못하는 좋은 기회도 주어졌고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런 혜택과 기회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참 좋은 기회라는 걸 이해하고 내 걸로 잡을 수 있게 도와준 것 같아요. 대학에서는 수백 개의 클럽이 있고 외부에서 자주 강사 초빙해서 강의도 해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넘쳐나는데 그런 기회들을 지나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방에서 게임만 한다던가 하면서 뭐랄까.. 그런 기회들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안타까워요.

(연구 참여자 A, 1차면담, 대면면담, 2018년 12월 17일)

연구 참여자 B와 연구 참여자 G도 연구 참여자 A와 마찬가지로 동아리 활동 경험에 대해 언급했다. 연구 참여자 G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 기회가 부여된 대학 생활에서 국제학교에서의 동아리 활동 경험과 생각들이 대학 자유 시간 활용에도 연결이 되었다고 전했다.

일반 학교랑 국제학교랑 비교하면 국제학교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일반 학교에 비해서 국제학교는 다양한 경험이나 활동 범위가 있잖아요. 방과 후 스포츠를 한다든지 해외 봉사를 간다든지 AP나 SAT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처음 동아리 페어를 하는데 어떤 동아리를 들어갈까 고민을 할 때도 국제학교에서 경험이 있다 보니까 해외 봉사를 하게 된다든지 튜터링 같이 국제학교에서 했던 경험을 살려서 선택을 하게 됐어요. 결국 동아리 활동도 남은 시간을 쪼개서 쓰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 G 1차면담, 영상통화, 2019년 4월 21일)

다음의 내용은 국제학교 재학 기간 동안의 기숙사 생활이 대학 진학 후의 기숙사 생활 적응에 상당한 도움이 된 연구 참여자 A, 연구 참여자 B의 사례이다.

기본적인 방청소나 빨래 같은 부분은 국제학교에서도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입학 하면서부터도 계속 했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국제학교 입학 했을 때 8학년이었는데 그때부터 방청소나 빨래 정도는 스스로 하게 했기 때문에 적응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식사 부분도 지금 기숙사에 살고 있어서 학식이 나와서 큰 차이점이 없어요. 자취해야하고 직접 챙겨먹어야 하면 정말 힘들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저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연구 참여자 A, 2차면담, 일반통화, 2019년 5월 14일)

국제학교에 들어간 이후 바로 기숙사에 들어가서 저는 기숙사에서 5년 정도 살았어요. 그러고서 유학 처음 왔을 때에도 대학교에 기숙사로 바로 들어와서 기숙사에 살았는데 국제학교 경험 덕분에 잘 적응 한 것 같고 이후 자취 할 때도 마찬가지로요. 기숙사 내의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게 이미 익숙했으니까요.

(연구 참여자 B, 다자통화, 그룹인터뷰, 2019 5월 18일)

국제학교의 기숙사에는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리긴 하지만 일반적인 기숙사 사감의 역할을 하는 성인들이 학생들의 생활을 도와주고 있다. 학생들이 아침 기상 시간에 일어나지 못하면 깨워주거나 식사 시간에 학생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비록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시간 관리, 청결 관리 등을 직접 해 나가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실수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곁에서 도움을 주는 사감들이 있었기에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다가 주변의 지원이 모두 사라진 대학 생활에서 학생들은 갑작스레 늘어난 집안일등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국제학

교 시절에는 필요 없었던 부가적인 잔업들이 늘어난 것도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사유가 되기도 했다.

국제학교에서도 기숙사 생활을 했지만 대학교 가서 기숙사 생활하면서는 국제학교와는 다르게 청소부분에 제가 더 신경 써서 해야 하고 청결 관리 면에서도 시간을 많이 써야 했어요. 하지만 수업 준비라든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끝내는 성격이라 나름 주어진 조건에서는 잘 적응 해온 듯해요. 학교(국제학교) 다닐 때 있었던 자유시간들을 잘 써왔던 경험도 도움이 됐어요.

(연구 참여자 D, 2차면담, 영상통화, 2019년 3월 26일)

공부자체보다는 생활 패턴이 너무 달라져서 적응하는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국제학교에서는 모든 스케줄이 학교에 의해 짜여져 있잖아요. 우리는 그 스케줄을 엄격하게 따라야 했는데 대학교에 오니까 일주일에 수업이 5개 밖에 없고 수업들도 띄엄띄엄 있고 게다가 스케줄도 제가 직접 짜야 하잖아요. 일단은 자유시간이 너무 많이 생겨버리고 시간 관리를 하는데 적응기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와서 사감 선생님이 있고 없고는 정말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국제학교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가 아침에 늦잠자서 수업을 늦었던 경우도 있어요. 자유시간도 국제학교에서는 상급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자유 시간 활용에 자율성이 많이 늘기 때문에 시간 관리도 어느 정도 쉽게 적응은 한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A, 2차면담, 일반통화, 2019년 5월 14일)

연구 참여자 D와 A 또한 위와 같이 비슷한 내용의 어려움을 이야기 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 D와 A는 국제학교에서의 자유 시간 활용 경험이 현재의 대학 생활에 도움이 됐다는 부분과 함께 보조적인 관리를 해주었던 사감의 존재 유무가 큰 차이라고도 언급했다.

국제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단체 생활이랄까? 이런 부분은 익숙해져 있었던 부분이라 상당 부분은 잘 적응 했다고 봐요. 5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했던 게 심리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다가 처음으로 해외에 떨어져서 생활 하는 거라 많이 힘들어했는데 저는 해외에 나와 혼자 사는 건 처음이지만 이런 건 해본 적 있지.. 예전에도 해 봤으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다만 1학년 때는 특히 시행착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주어진 자유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헤매거나 예전에 기숙사 살았던 것처럼 감독을 해주시는 분이 없으니까 관리 하는 게 어려웠는데 공부도 하면서 밥도 해 먹어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제가 직접 해야 하는 일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간 분배를 해야

할지 몰라서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쓰기 시작 했어요. 왜냐면 갑자기 계획을 세우지 않고 흘러가는 데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대학 생활 4년을 이끌어다가 지치게 될 것 같았어요. 중간 중간에 휴학하는 친구들이 이해되기도 했어요.

(연구 참여자 H, 1차면담, 영상통화, 2019년 3월 3일)

연구 참여자 H에게도 대학 진학 후 사소한 집안일과 정해져 있는 시간을 분배하는 등의 생활 관리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국제학교에서의 기숙사 생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생활 계획을 세우며 어려움을 이겨나갔다.

3. 유학 생활에 공유된 의미

제주 국제학교를 졸업한 해외 유학생의 유학 생활에 공유된 의미는 높은 성취 기대감에 따른 좌절 넘어서기, 부여된 자율성만큼 반가운 책임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 찾아가는 과정으로 분류되었다.

1) 높은 성취 기대감에 따른 좌절 넘어서기

연구 참여자들은 입을 모아 국제학교에서의 경험은 해외 대학 유학 생활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얘기했다. 국제학교의 생활을 통해 스스로가 긍정적인 변화한 모습을 지난 시간들을 떠올리며 확인했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요소들이 있었다. 바로 높은 성적에 대한 욕구, 유명한 대학교로의 진학만을 목표로 삼거나 동기보다 뛰어난 학생이 되고 싶은 마음들로 인해 좌절하는 순간을 겪게 된 것이다. 연구 참여자 별로 지나온 어려움의 정도나 문제는 차이가 있었지만 그들은 높은 성적, 남들보다 빠르고 월등한 학생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내려놓으며 본인 스스로에게 맞는 학습법과 진로 등에 대해 고민하며 장애물들을 넘어서고 있었다.

국제학교에서 보낸 시간이 확실히 지금 생활까지 이어져 오고 있기는 해요. 다만 왜 그렇게 성적에 집착하고 저 스스로에게 관대하지 못했던 부분은 지금도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학교에 입학하고 많이 내려놓고 생각도 많아지고 하다보니까 성적도 바닥이고, 졸업 못하는 건 아냐? 하고 생각도 했어요.

(연구 참여자 B, 1차면담, 대면면담, 2018년 12월 26일)

연구 참여자 B는 국제학교 재학 기간 동안 높은 성적을 꾸준히 유지하며 다양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학생이다. 대학 진학 준비 과정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 지역과 부모의 기대가 서로 달라 마찰이 생기며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포기해야 했다. 그러한 과정을 지나면서 본인의 삶에 대한 의구심도 생기고 많은 고민이 생겼다고 전했다. 한수연(2013)은 연구를 통해 본인의 의지로 유학을 선택한 학생들과는 달리 유학동기가 부모나 타인의 영향을 받을수록 부모의 진로지지를 인식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밝혔는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진로 선택에 따른 부수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것이 부모의 진로 지지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바 있다. 연구 참여자 B도 진학 과정에서 본인의 의지와는 다른 선택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을 얻게 된 것으로 보였다.

대학 처음 와서는 엄마랑 잘 연락도 안됐고요. 저 혼자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평소에 안하던 것들. 그래서 공부 안했었죠. 저 하면 공부만 하는 애잖아요. 공부만 하는 애잖아요. 공부에 목숨 걸던 사람인데 처음으로 났어요. 공부가 나를 원하는 길로만 데려 가는 게 아니구나 하고 느낀 거예요. 처음으로 느꼈어요. 공부가 나를 배신 한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원하는 대학도 못가고. 솔직히 내가 편하지도 않고. 서글펐죠. 주변 친구들이 좋은 대학을 가면 축하를 못해줬던 게 마음이 아프고요. 축하를 해주고 싶은데 내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까.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옛날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연락 안하고 새로운 사람들로 만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여러 가지 동아리 7개까지 들었어요. 국제 학생들을 위한 그룹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난 사람들 덕분에 살 것 같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쪽으로 집중 했어요. 2학년때 선거해서 1년 동안 임기직도 하고 여름 방학 때 엄청 바쁘고. 남한테 베풀다 보니까 마음이 풀리지더라고요. 내가 나쁜 곳에 떨어진 게 아니라 내가 나쁜 곳에 떨어졌다고 믿어서 내가 너무 괴로웠구나 싶었어요. 막상 사람들에게 마음도 열고 나 자신에게 당당해 지다보니까 내가 너무 좋은 곳에

있구나! 라고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있는 곳이 기회가 넘쳐나고 사람들도 나를 돕고 싶었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를 몰랐구나. 살짝 눈만 돌렸는데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사람은 마음먹기 나름이구나 싶었어요.

(연구 참여자 B, 1차면담, 대면면담, 2018년 12월 26일)

부모와의 대학 진학과 관련된 마찰에서부터 시작된 스스로를 가두는 고립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는 좌절감뿐만 아니라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 진학 성적을 냈다고 판단하고 연구 참여자 B는 스스로를 동굴 안으로 밀어 넣는 상황으로 까지 가게 된 것이다. 연구 참여자 B는 2년여의 시간동안 국제학교 졸업생 학교 방문 등 학교와 관련되거나 졸업 동기들과 관련된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숨어 지냈다고 말했다. 연구 참여자 B에게 그 시간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연구 참여자 B는 2년 가까운 시간동안 해외에서 유학생활동을 하며 스스로에게 내재되어 있던 자아를 찾고 가정, 부모,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분리해 오로지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알아가는 시간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생활 속에서 자신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고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자신의 삶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간들을 지나오게 됐다.

연구 참여자 D는 대학 입학 전부터 고민의 시간을 보냈다. 만만치 않은 학비와 생활비에, 대학 입학 지원 당시 명문대학 입학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선택을 하다 보니 본인의 성향이나 적성에 맞지 않는 진학이 이루어진 것이다. 본인이 정했던 목표처럼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명문 대학교에 입학 했지만 그는 현재의 대학 생활을 포기하고 편입을 고려하고 있다.

이름 있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만 했던 게 지금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카운슬러 선생님과 대화에서도 미국 내 좋은 학교만을 목표로 삼다보니 대학교에 입학 하고 나서 학비나 생활비도 부담이고 여기 생활이 저에게 맞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시간도 낭비, 돈도 낭비한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고요. 입학하자마자 편입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편입을 고려하고 있는 이상 이번에는 저에게 맞는 제대로 된 학교를 찾고 싶어요. 1년이 날아가기는 했지만 그렇게 늦은 출발은 아닌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D, 2차면담, 영상통화, 2019년 3월 26일)

연구 참여자 D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비로소 본인에게 맞는 대학을 찾아

가는 과정을 시작했고 아시아 국가내의 대학으로 편입 절차를 밟고 있다. 입학 이후부터 그의 대학 생활은 편입에 맞춰져 움직이고 있었다. 수강 신청도 높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거나 본인이 고려하고 있는 진로와 관련된 과목으로 채워졌다. 아이러니 하게도 상위 대학으로 입학하고 1년 동안의 수학 경험이 현재의 편입 과정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완전한 낭비가 아니라 편입의 밑바탕이며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대학을 다시 찾아 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한국 사람들은 뭐든 빨리 빨리하고 항상 바쁘게 살아야 하고 이런 부분이 당연한 거고 제 스스로도 자기를 발전시키는 삶에 익숙해져 있어서 대학교에 와서 계속 쉬지 않고 노력을 했어요. 교수님들께 제가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4학년 끝날 때 까지 계획을 짜가서 얘기하고 제 생각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한분의 교수님도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저한테 저는 1학년 밖에 안됐는데 왜 벌써부터 앞일을 걱정 하나? 걱정이 너무 많다. 쉬엄쉬엄 가야 한다고 말씀 하셨어요. 여기 사람들은 느긋느긋 해요. 저는 수업 늦을 것 같으면 엄청 뛰어가고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그러려니 하고 천천히 가기도 하구요. 저는 열정이 앞서서 하고 싶은 건데 교수님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앞서나가려고 한다고 단정 짓고 도움을 주지 않으니까 처음은 너무 답답했어요. 이번 주에 나가게 될 진도에 맞춰서 미리 책을 다 읽고 가고 이러면 교수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는 구나라는 반응 보다는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고 많이 얘기하셨어요. 처음엔 좌절하고 이 학교만 이렇가 하는 생각도 들도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하는 생각하기도 했어요.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제가 앞서 나가려는 욕구만큼 교수님들은 시기에 맞는 절차와 과정을 밟아 가는 거라고 계속 말씀 하셨고요.

(연구 참여자 C, 1차면담, 일반통화, 2019년 5월 16일)

우리나라의 환경을 살펴보면 선행학습을 중요시 하는 환경도 있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해진 일을 끝내는 것이 능력인 것처럼 비춰지는 경향이 많다.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도 선행 학습이나 사교육 위주의 교육 환경이 싫어 국제학교를 선택했지만 대학 입시 과정에서 학원이나 과외와 같은 사교육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생활 패턴에 몸에 배어있던 연구 참여자 C는 대학 진학 후에도 4년간의 계획을 짜가는 등의 모습을 통해 교수들에게 학습 의지도 보여주고 4년간의 대학 생활 및 이후 진로를 위한 준비를 일찍 시작하고 싶었지만 교수진들의 반응은 너무 이르다는 공통된 지적뿐이었다. 처음에는 좌절을 느끼기도 하고 미리 준비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은데 동의해주지 않는 상황에도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고 전했다. 반복되는 상황을 마주하면서 연구 참여자 C는 빨리 가려는 욕구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남들보다 높은 성적과 빠른 학습을 추구하기보다, 시기에 맞고 적절한 과정을 밟아가는 중요성을 서서히 깨우치고 있었다.

2) 부여된 자율성만큼 반가운 책임감

자율성과 책임감은 여러 연구 참여자들이 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아닐까 싶다. 그들은 국제학교 생활과 비교해 삶에 선택의 폭이 넓어짐과 동시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 졌다고 입을 모았다. 자기 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자율성에 따르는 책임감에 대한 얘기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고등학교(국제학교) 때는 대학생활을 떠올리면 뭐랄까 약간 자유로움? 그런 이미지였는데 막상 와보니까 자유 뒤에 있었던 책임감은 그때 당시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대학에 와보니 성인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책임감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당장 아파서 병원을 가야할 때도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를 책임져야 한다든지, 학생 보험에 가입하면 제가 스스로 전화해서 해결한다든지 이런 자잘한 일들을 많이 부딪치고 경험하면서 많은 책임감이 뒤따른다고 느꼈어요. 그런 책임감들이 그래도 저를 잡아주는 것 같아요. 뭔가 해결을 해냈고 잘 이겨냈다는 느낌으로요.

(연구 참여자 H, 2차면담, 영상통화, 2019년 3월 26일)

연구 참여자 H는 국제학교에 다니는 동안 대학을 떠올리면 ‘자유’가 먼저 떠올랐다고 전했다. 그리고 ‘자유’뒤에 자리 잡고 있는 책임감에 대해서는 해외 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한 후 크게 느끼게 되었다고 했다. 연구 참여자 H와 2차면담 이전에 한 차례 영상통화 면담을 연기한 적이 있었다. 왜냐하면 연구 참여자 H가 지독한 감기 몸살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후 면담을 진행할 때에도 몸이 아파서 힘들었던 시간들이 연구 참여자에게는 스스로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의 일부로 여겨진 듯 했다. 미국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의료 시스템이 복잡하고 의료비가 우리나라에 비해 비쌀 뿐만 아니라 이후 보험 청구와 같은 일을 연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연구 참여자 H는 누구의 도움 하나 없이 이러한 시간들을

견뎌내면서 그 안에서 스스로 모두 해냈다는 성취감을 찾아내며 성장하게 된 계기로 바라보고 있었다.

전 Freedom(자유)을 많이 느껴요. 제 시간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좋아요. 수업도 제가 원하는 수업으로 골라서 신청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고등학교 때는 다 짜여 있었잖아요. 대학교도 마찬가지로인데, 대학교는 강의도 출석체크를 대부분 안하고 더 공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교수님을 찾아가도 되고 시간을 나눠 쓰는 것도 필요한 부분을 제가 스스로 알아서 나눠 쓸 수 있으니까, 틀이 없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좋았어요. 거기에서 오는 책임도 제가 다 지게 되니까 막 살지도 않게 되고... 책임감이 더 따르게 되니까요. 그런 책임감도 부담스럽게 느껴진 게 아니라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게 좋기도 했어요. 드디어 성인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연구 참여자 E, 그룹인터뷰, 다자통화, 2019년 5월 14일)

연구 참여자 E는 국제학교에서 보다 자신에게 부여된 자율성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부여된 책임감을 부담스러워 하기 보다는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여기며 반갑다고 표현했다. 국제학교에서는 짜여진 시간표와 스케줄을 따라 소극적인 존재로 교육을 받았다면 대학 진학 후에는 스스로 다독이며 책임 있는 자세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다.

대학 와서 제일 크게 느낀 게 자립성 부분 이에요. 국제학교에 있을 때는 틀이 다 있고 짜 맞춰진 스케줄에 흘러가는 데로 지냈다면 대학교에서는 기회나 사람 만나는 일 이런 기회 자체가 무궁무진해서 제 선택이 모든 걸 결정하게 되잖아요. 진로 결정이나 어떤 공부를 더하고 싶고 어떤 부류에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걸 제가 다 결정하기 때문에 남한테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인터넷으로도 찾아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서 '이런 활동이 있다. 이런 곳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인턴십 기회가 있다.' 이런 것도 혼자서 독립해서 조사하게 되고 기회가 많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연구가 있거나 하면 제가 이메일 보내서 '여기에 관심 있습니다. 뽑아주세요.' 하는 이런 경험들이 색달랐던 것 같아요. 버릴 건 버리고 가질 건 갖고 하면서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effective(효과적으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현실에서 가능한 최대치로 항상 하고자 하게 돼요.

(연구 참여자 G, 그룹인터뷰, 다자통화, 2019년 5월 14일)

연구 참여자 G는 그룹 인터뷰 과정에서 자립성과 효과적인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주어진 많은 기회 중에 본인이 원하는 기회를 스스로 찾아내고 그 기회를 따

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어려운 과정으로 여기기보다는 즐겁고 새로운 경로를 발견해 나가는 흥미로운 과정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한 과정들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시간과 자원들을 활용해 나가며 성장하고 있었다.

3)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 찾아가는 과정

사람들은 다양한 선택과 적응, 변화의 문제들과 의사결정을 전 생애에 걸쳐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특히 청년기의 진로발달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전 시기와는 다른 특징을 보일 뿐만 아니라, 향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Super D. E., 1980). 연구 참여자들 또한 대학에서의 결정과 행동들이 앞으로의 삶에 미칠 영향과 그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며 진로의식을 발달시키고 있었다. 다음은 연구 참여자 H의 이야기이다.

대학에서의 생활은 제 미래를 보고 가는 길인 것 같아요. 지금의 대학생살은 너무 막막하기는 해요. 아직도 진로도 못 정하고 졸업은 할 수 있을지, 졸업 하고 난 후의 삶도 잘 모르겠지만 그 이후의 삶에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연구 참여자 H, 1차면담, 영상통화, 2019년 3월 3일)

연구 참여자 H에게 대학 생활은 자신의 미래를 보고 가는 길이였다. 인터뷰 시간 동안 앞으로의 진로를 찾아가게 될 과정에 대해 불안한 마음과 함께 기대감도 종종 표현했던 참여자였다. 지금 시점에서는 해외에 거주하게 될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갈지 모르지만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해 버텨온 시간들과 앞으로 만나게 될 시간들이 미래의 직업과 진로 결정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B는 부모님 특히, 어머니와의 거리가 생기면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2차례 개별면담과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언급 했다.

제게 대학생살은 아직도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나?' 하는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봐요. 저는 사춘기가 늦게 왔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국제학교에서의 목표는 무조건 '좋은 대학을 가야해'였기 때문에 공무만 해야 해! 하고 생각도 했고 좋은 동아리 있으면 그것도 잘 해야 하고 무조건 대학 위주로 살았잖아요. 내가 뭘 하고 싶고 어떤 사람이고 하는 생각을 못했어요. 항상 엄마가 '이거 해라'라고 하시면 그게 좋은 건가보다 하고 다 했는데 막상 대학교에 와서 보니까 엄마가 얘기 했던 그 길이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닐 수도 있구나, 엄마가 항상 옳기만 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고마워요. 드디어 나에게 오롯이 집중할 수 있구나 라고 느꼈고 내가 뭘 원하는지를 좀 더 생각하게 해줬어요.

(연구 참여자 B, 다자통화, 그룹 인터뷰, 2019년 5월 14일)

연구 참여자들은 해외 유학을 통해 다양한 교육 기회, 언어 습득, 문화 이해와 같은 긍정적으로 혜택을 받기도 하지만 앞서 언급한 주제처럼 가족과 고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외로움도 극복해야 하는 시간이자 연구 참여자 스스로에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엄마라는 든든하고 따뜻한 배에서 내려와 초라하고 작은 나룻배로 옮겨 탔지만 마음만은 편하다고 이야기 했다. 지금도 가정에서의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지만 방학기간 동안 인턴쉽도 시작하며 경제적으로도 자립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모든 순간과 결정이 연구 참여자 B에게는 주변의 간섭과 과도한 관심에서 한 발자국씩 벗어나고 자기만의 길을 찾아가는 가벼운 발걸음만큼이나 기대되고 흥분되는 일이었다.

저에게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 주변의 사람들이예요. 저는 지금의 인맥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제 이름이 되고 서로 도움을 주고 하는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졸업이 가까워진 시점에도 지금 하고 있는 한인 학생회장일도 마무리 잘 하고 졸업하고도 이 인연들을 이어가고 싶어요. 아직 확실히 결정은 하지 않았고 주변에 잘 알리지도 않았지만 제가 졸업 후 첫 직장을 제 모교로 결정한 것은 제가 받은 도움을 돌려주고 싶은 마음과 저는 지금 학생들이 겪는 상황을 거쳐 왔으니까 뭐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어요. 졸업한 후 졸업생 행사에도 꾸준히 참석하고 했던 부분도 쌓아왔던 인맥을 이어가기 위한 이유도 있었고 제 노력이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도 정할 수 있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연구 참여자 F, 1차면담, 일반통화, 2019년 2월 17일)

연구 참여자 F는 면담을 시작하는 시기에 대학교에서의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었다. 다른 연구 참여자들과는 반대로 이미 졸업 후의 진로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미

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걱정은 많이 줄었다고 전했다. 대학교에서 교육 관련 전공을 가졌던 연구 참여자 F의 첫 직장은 놀랍게도 본인이 졸업한 제주의 국제학교였다. 국제학교를 다니며 공부하고 생활 했던 시간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자신은 존재하기 어렵지 않았겠냐고 이야기 하며 본인이 받았던 도움을 후배들에게 돌려주고 싶다고 했다. 그간의 경험과 지식들이 후배들을 위해 쓰이길 바라는 마음이었던 것이다. 면담을 하는 동안 연구 참여자 F는 걸려오는 전화통화도 많았고 기숙사 방으로 찾아오던 친구들도 많았다. 대학교의 한인학생회장도 맡고 있었다. 지금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회생활이며 인맥은 본인의 이름과도 같다고 언급했다. 연구 참여자 F에게 대학교는 인맥을 넓혀 가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는 장소였으며 인맥과 인연을 이어온 본인의 노력이 대학을 성공적으로 졸업하게 하고 첫 직장도 얻게 하는 결과를 이뤘다고 믿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F에게 대학 생활과 대학에서의 경험은 사람으로 채워졌고 사람으로 인해 완성되었다는 믿음으로 그녀의 성격처럼 쾌활하고 밝게 끝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이 연구의 목적은 제주 국제학교 학생의 생활 경험과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 국제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해외 대학 유학 생활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대학 생활 준비를 위한 필요한 지원이나 국제학교 현장에서의 진로 상담적 함의를 찾아보고자 했다. 연구문제는 제주 국제학교 졸업생들의 제주 국제학교 졸업생의 재학 당시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은 어떠했는지 맥락을 살펴보고 해외 대학 유학 생활 경험을 살펴보기, 마지막으로 제주 국제학교 졸업생은 자신의 해외 대학 유학 생활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삼았다. 학생들이 국제학교 재학 경험과 대학 생활 경험에 공통적으로 부여하는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 중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했으며 연구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주 국제학교를 졸업한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유학 생활 경험에 대해 높은 성취 기대감을 채우지 못해 좌절을 넘어서고 자율성과 책임감에 대해 알아가며, 미래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 찾아가는 과정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기존의 말레이시아로 유학을 떠난 3명의 한국인 유학생의 적응과정을 살펴본 질적 연구(Singh, 2010)에서 연구자가 해석한 그들의 생활의 의미는 언어를 통한 분열과 결합, 지역 문화에 대한 지각과 편견, ‘do or die’(해내거나 아니면 죽거나)로 인식되는 학업에 대한 도전과 성취였으며 국제학교를 졸업한 연구 참여자들이 대학 생활 경험에 대해 부여한 의미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한국인 일반 유학생에게 영어는 좌절감과 불안감의 근원이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들은 하루에 6시간 이상씩 영어 공부에 소모하고 있었다. 또한 언어에 대한 불안감이 문화적인 적응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자세히 이해하지 못하는 문화에 대한 두려움과 혼란이 학생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 참여한 국제학교 졸업생 연구 참여자들 또한 학문적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는 했지만 언어 사용이 문화적응을 저해하고 생활에 대한 불안감의 근원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원어민처럼 사용하지 못한다는 비교에서 나온 좌절감에 가까웠다. 문화 적응 또한 한국의 일반 유학생들은 문화 차이 극복과 지역의 문화 적응을 위한 노력보다는 학문적 성취로 대신하려는 경향을 보여 문화 차이 이해와 수용에 더딘 편으로 보았지만 해외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국제학교 졸업생들에게 문화 적응은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반면에 높은 성적과 보다 자유로운 언어 소통과 같은 성취에 대한 욕구는 양쪽 연구의 참여자들 모두 높은 경향을 보여 공통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위의 내용과 같은 유학 생활 경험의 의미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점을 연구자는 제주 국제학교를 졸업하고 해외 대학으로 진학한 그들만의 특수한 맥락적 요인을 고려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제주 국제학교에서 교육받고 생활하며 해외 유학을 준비했다. 국제학교에서의 교과활동의 대부분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해 이루어졌으며 국제 공용 교육과정은 연구 참여자의 전공 및 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정도는 달랐지만 대학에서의 학업적응에 일정부분 도움을 주었다. 다양하게 제공되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과 클럽 활동, 상담적 지원 등과 같은 비교과 과정을 통해 국제학교를 졸업한 연구 참여자들은 빠른 문화 이해와 이문화 수용에 대해 관대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이 국제학교에서의 생활을 모두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은 아니다. 제주 국제학교를 졸업한 연구 참여자들은 영어 사용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는 예상을 깨고 대학에서의 학문적 영어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수업방식이나 늘어난 독서량과 같은 학업 적응, 부모와의 마찰과 같은 가정에서의 문제 등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었으며 다양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해 연구자는 국제학교 재학 당시의 실제적 진로 및 진학 상담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과정을 시작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 그리고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의 지역 등을 고려한 수강 신청이 가능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AP와 IBDP와 같은 국제 공통 교육과정과 대학 학점 선이수제가 대학 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되는 기존 선행연구들(Wray, 2013; Geiser & Santelices, 2004; Saavedra, 2011)과는 반대로 연구 참여자들이 AP와 IBDP와 같은 교육과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한 후 받은 혜택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AP와 IBDP와 같은 교육 과정을 통한 선이수 학점 인정에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홍콩과 싱가포르와 같은 아시아 국가로 진학한 학생들은 대학 과목을 AP과정을 통해 선이수한 학점을 전혀 인정받지 못했으며 IBDP 과정으로 북미 대학교로 진학한 학생들은 상위 레벨에서 만점을 받아야만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대학에서의 전공과 일치하는 AP 과목 또는 IB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대학의 수업내용을 쉽게 이해하거나 상위 과목으로 바로 수강이 가능한 장점이 있었다고 전한 반면, 전공과 관련 없는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대학에서의 학점관리나 수업적응에 도움을 얻지 못하는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다.

둘째, 진로 상담 과정과 대학 생활 준비 과정에서 학생들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상담과 함께 대학 입학만을 위한 진로 상담이 아닌 대학 이후 생활을 위한 상담적 고려도 필요하다. 선행 연구를 통해서도 학생들이 충분한 정보나 진로에 대한 확고한 자기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유학결정은 진로발달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진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른들의 의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유학목적과 동기는 유학생들과 심리사회적 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윤초희, 한수연 2015). 앞서 살펴본 학생들의 가정생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학생이 처해있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양육 환경, 부모의 태도는 각기 가정에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어머니와의 대학 입학 지원 과정에서부터 나타난 갈등으로 인해 정체성 문제와 대학 진학에 실패했다는 좌절감에 사로잡혀 힘든 시간을 보냈던 연구 참여자의 사례에서 보이듯, 국제학교 재학기간 동안 학생-학교-학부모 3자간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정보 교류를 통해 학생들 개개인의 진로 문제와 대학 입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유로운 대

학 생활에 따르는 책임감 있는 생활이 가능하도록 자기관리역량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셋째, 대학 입시 지원 과정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상위 랭킹의 대학교가 아닌 학생의 적성이며 성향이다.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 입시 과정에서의 목표는 ‘유명한 대학교 들어가기’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다보니 대학 입학 후 적성에 맞지 않은 학교나 학과 선택으로 미래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이 있었으며 일부는 편입을 고려하고 있기도 했다. 이숙정, 유지현(2008)은 대학생들이 중·고등학교시기에 자신의 정체성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능력, 흥미, 적성 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학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진로 문제 등으로 인한 좌절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도 했다. 자신이 어느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는지, 흥미를 보이는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동아리나 클럽활동과 같은 기회를 통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이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제주 국제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국제학교 재학 당시의 경험과 대학 진학 후 해외 유학 생활을 들여다봄으로서 제주 국제학교들의 대학 준비 과정을 살펴보고 국제학교 졸업생들은 자신의 유학 생활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과정을 통해 도출된 제주 국제학교 졸업생이 해외 대학 유학 생활에 부여하는 의미는 높은 성취 기대감에 따른 좌절 넘어서기, 부여된 자율성만큼 반가운 책임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 찾아가는 과정으로 도출했으며 연구 결과에 대한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의미는 높은 성취 기대감에 따른 좌절 넘어서기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오랜 기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국제 공통의 교육과정으로 영어를 수학 언어로 삼아 국제학교에서 교육 및 생활 경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어민과 자신의 언어 사용 능력을 비교하며 언어 사용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으며 기초지식이나 배경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끼기도 했다. 면담 내용 중에는 국제학교 재학 당시 성적을 너무 쉽게 받았던 것 같다는 내용과 함께 졸업까지 가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언급한 연구 참여자들도 있었다. 또한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국제학교에서 대학교 입학 지원 단계에서 본인의 적성이나 향후 진로를 우선으로 고려하기 보다는 이름 있고 대학 순위에서 상위에 위치해 있는 대학을 주로 타깃으로 삼아 대학 입학을 하다 보니 입학 후에 전공 선택과정이나 생활 과정에서 혼란을 겪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다. Gap year를 가지고 다시 대학 입시를 준비하거나 편입을 준비 중인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일련의 학업적인 적응과정을 단순한 어려움으로 바라보거나 좌절한 채로 무력해 있기 보다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수의 동의를 얻어 수업 내용을 녹음하고 반복적으로 청취를 하거나 배경 지식 확보를 위한 문헌 자료 수집 등을 통해 원어민이 될 수는 없지만 그들과 비슷해 질 수는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또한 적성과 성향에 맞지 않은 대학과 학과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대학 생활을 지속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편입이나 입시 지원 과정을 다시 거치는 등 다른 대안을 찾아가고 있었다.

두 번째 의미는 부여된 자율성만큼 반가운 책임감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언급했던 국제학교 생활과 대학 생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유'였다. 학업적으로는 과목 선택의 폭이 많이 늘었으며 일상생활에서는 자유시간과 성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다고 이야기 했다. 자유가 늘어난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감의 무게도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연구 참여자들에게 책임감은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닌 스스로 어른이 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반가운 존재였다. 몸이 아파도 스스로 관리하고 이겨내야 하며 별다른 출석 체크를 하지 않음에도 수업 시간에 빠지지 않았다. 제시되어 있는 틀이 없고 자신이 모두 결정해야 하는 만큼 연구 참여자들은 그 안에서 스스로 자립성을 키우고 자기 관리를 성실하게 해내고 있었다.

세 번째 의미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가족 및 사이가 가까웠던 친구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해외 유학 생활의 시작은 연구 참여자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국제학교 재학 기간 동안 부모와 생활 했던 통학 학생들은 물론, 이미 부모와 떨어져 국제학교 기숙사 생활을 경험했던 연구 참여자들조차 향수병이 찾아오거나 늦게 찾아온 정체성의 위기 등 정서적 어려움을 준 시간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주위 사람들과 본인을 분리해서 보기 시작하고 적응해 나가는 시간들을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여기고 있었다. 그리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을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으로 여기며 스스로에게 초점을 맞춰 보기도 하고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아가며 대학 생활과 이후의 성공적인 삶을 위한 생애전략과 진로의식을 세워가고 있었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국제학교 재학생이나 학부모 위주로 진행되었던 기존 선행연구의 폭을 국제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연구 참여자로 삼아 연구 대상을 확장 시켰다. 또한 제주의 국제학교 졸업이라는 특수한 맥락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진학 이후의 생활 경험과 그들의 부여하는 의미를 찾아봄으로서, 현재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위한 진로 상담과 대학 생활 준비 과정에 필요한 요인들을 찾아봄과 동시에 국제학교 재학기간동안의 생활과 대학 진학에 대한 관심만큼 학생들의 졸업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는 점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제주 국제학교 2곳의 8명의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삼아 연구 참여자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또한 심층 면담을 주요 연구 자료 수집 방안으로 삼았으나 기초면접 1회, 심층면담 2~3회로 보다 깊은 면담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한계로 볼 수 있다. 만일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내의 국제학교 4곳 전체 학교 졸업생들을 연구해 보거나 국내의 전체 외국인학교 또는 국제학교로 참여자 범위를 넓혀 볼 수 있다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연구는 제주 국제학교 졸업생의 과거 국제학교 경험과 현재의 해외 대학 유학 생활 경험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대학 생활 이후에 대한 관찰이 부족하고 볼 수 있다.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대학 생활 경험뿐만 아니라 유학 생활 중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정, 대학교를 졸업한 후 학생들의 직업이나 진로와 같은 교육 경험 결과와 관련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강익수, 홍후조, 성열관(2006). 우수 고교생의 대학 진학 준비 과정으로서의 AP와 IB의 비교 연구. *비교교육연구*, 16(4), 207-235.
- 권귀영(2017). 외국인 유학생의 스트레스가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 권순철(2014). 형성적 접근을 적용한 대학생 자기관리역량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분석. 박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 권혜진(2007). 대학생의 대학환경풍토지각과 대학 생활 적응 및 학업 성취도간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금명자, 남향자(2010). 전국 대학 신입생의 대학생생활 기대 및 정신건강. *인간 이해*, 31(1), 105-127.
- 김경숙(2012). 한국인 해외유학생의 문화진입스트레스와 학업스트레스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 김경희(2016). AP와 IBDP의 대학입학전형자료로 활용가능성 탐색. *교육문화연구*, 22(4), 135-156.
- 김기호(2014). 이주배경 청소년의 부적응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김기홍(2019).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 학습몰입,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핵심역량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박사학위논문, 대진대학교
- 김명찬(2013). 학업실패를 경험한 서울대학교 학생의 적응과정 분석.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분한 외 9인(1999).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비교고찰 - Giorgi, Colaizzi, Van Kaam방법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29(6), 1208-1220.
- 김서현(2018). 자기관리 역량 구성 요인에 대한 뇌과학적 이해와 교육적 시사점.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김연화(2015). 사회비교동기가 자기주도적 학습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12), 117-144

- 김연화, 유경미(2014). 대학생의 사회비교동기 및 자기주도적 학습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1(4), 107-132.
- 김정은(2014), 장애 대학생의 장애 정체감과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통합교육연구*, 9(1), 79-102.
- 김현경(2012). 다인종 캠퍼스 유학생들의 다문화적 태도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 영국의 한국 유학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현숙, 김희재(2014). *이민의 사회학*. 서울: 박영사
- 노안영, 강영신(2015). *성격심리학*. 서울: 학지사
- 민진영(2013).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원 학업 적응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박미숙(2010). 중국유학생의 한국생활 적응실태 조사 분석-대구, 경상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박혜숙, 원미숙(2010). 대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과 관련변인 탐색. *교육심리연구*, 24(2), 303-325.
- 배고운(2009). 고등학생의 진로선택과 학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백일민(2011)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의 영어 자신감과 정서조절곤란, 문화적응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서경숙(2015). 부모지지가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 서나래(2014). 한국 화교의 문화 혼종성 교육 경험과 정체성 형성: 국제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36(3), 53-82.
- 손경숙(2016). 대학생들의 의사소통에 따른 자기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 *임상사회사업연구*, 13(1), 1-17.
- 송현심, 홍혜영(2010), 대학상담: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1(3), 1325-1350.
- 신혜진(2018). 제주국제학교를 선택한 학부모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양혜선(2004). 애착유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우희순, 최유임(2018). 시간관리능력이 고등학생의 심리사회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11), 565-572.
- 윤수정(2009). 한국 주재 국제학교 학생들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윤초희, 한수연(2015). 국제학교 학생의 자아존중감, 학교적응 및 부모의 진로지지가 진로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2), 145-170.
- 이덕난, 유의정, 김만점(2014).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의 법적 쟁점 분석. *교육법학연구*, 26(2), 155-186.
- 이숙정, 유지현(2008). 대학생의 학업 및 진로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22(3), 589-607.
- 이영선, 이동훈(2009). 귀국 청소년의 국내생활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10(4), 1783-1804.
- 이용석(2008). 이공계 대학원 유학생의 유학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이원휘 (2000). 고등학생의 시간관리와 학업 성취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유경(2014).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원 문화와 학업 적응에 대한 연구. *이중언어학*, 55, 249-284.
- 이은경(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 발달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은우(2005). 대학생의 정서지능,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이정미(2006). 자기관리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시간관리, 학습습관,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한국기독교교육대 테크노인력개발 전문대학원.
- 이혜경(2009).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부적응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이혜선(1995). 인지적 평가와 자기 효능감에 관한 연구: 과일반화 경향을 중심

- 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임수진, 한규석(2009). 중국인 유학생이 겪는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사회-심리적 요인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6(3), 413-427.
- 임정미(2017). 국제학교 학부모들의 코즈모폴리탄 교육방식.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임정미, 김종영(2017). 트랜스내셔널 레버리지로서의 국제학교. *문화와 사회*, 211-254.
- 정순둘, 박현주(2011). 외국인 며느리를 둔 시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3(2), 319-336.
- 장은옥(2017). 청소년의 성별, 학년 및 스트레스 관련 요인과 내면화, 외현화 문제와의 관계. *조선대학교 교과교육연구*, 38(1), 57-76.
- 정진경, 양계민(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1), 101-136.
- 정호순(2009). 청소년의 시간관리능력과 자기생활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들의 인과관계분석.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영어교육도시 제주 사업소개 및 국제학교 안내. 2019년 6월 2일 인용, <http://www.jeju.go.kr/edu/>
- 조은희(2015).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 학교적응, 학습몰입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조형정, 윤지영(2016). 대학생의 자아효능감과 대인관계 역량 간 관계에서 자기관리 역량의 매개효과 검증: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1), 267-290.
- 주동범, 김향화(2013). 국내 외국인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비교교육연구*, 23(1), 123-145.
- 주희정(2010).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대학 학습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교육문제연구*, 36, 135-159.
- 채송희(2009). 한국 주재 국제학교 학생들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최은지, 정명숙(2007). 외국인 유학생의 학문적 발표에 대한 인식 조사. *이중언*

- 어학, 35, 303-332.
- 최정인(2015). 일터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 역량이 학습전이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최태일(2001). 주한 외국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2).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시스템(K-CESA) 안내서.
- 한수연(2014). 유학동기에 따른 자기존중감, 학교생활만족도, 부모의 진로지지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학부유학을 준비하는 국제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허정훈(2001). 스포츠 자기관리전략: 이론적 고찰. *체육연구*, 14, 267-284.
- 황규호(2018). 고교-대학 교육의 연계 과제 탐색. *교육과정연구*, 36(3), 71-92.
- 황해연(2007). 재한 중국유학생의 대인관계문제와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홍성례(2011). 청년기 남녀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주관적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6), 71-87.
- Berry, J. W., Phinney, J. S., Sam, D. L., Vedder, P. (2006). Immigrant Youth: Acculturation, Identity, and Adap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55(3), 303-332.
- Berry, J. W, Sam, D. L (1997).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in J. W. Berry, m. H. Segal and C. Kagitcibasi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 291-326.
- Bissram, Jeremy (2015). *The effects of acculturative factors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international students' psychological adjustment. Doctoral dissert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Counseling Psychology.
- Bransford John D., Johnson Marcia K.(1972). Contextual prerequisites for understanding: Some investigations of comprehension and recall 1.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11(6), 717-726.

- Brown, Lorraine (2009). An ethnographic study of the friendship pattern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England: An attempt to recreate home through conational intera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8-3, 184-193.
- Brunsting N. C, Zachry C, Takeuchi R,(2018). Predictors of undergraduate international student psychosocial adjustment to US universities: A Systematic review from 2009-2018.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66, 22-33.
- Coffman D. L, Gilligan T. D (2002). Social support, stress, and self-efficacy: Effects on student's satisfaction. *Journal of College Student Retention: Research. Theory & Practice*, 41, 53-66.
- Creswell J. W (2010). **질적 연구방법론**[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조홍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역). 서울: 학지사.
- Dillon R. K., Swann, J. S (1997). Studying in America: Assessing how uncertainty reduction and communication satisfaction influence international students' adjustment to U. S. campus lif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 Fritz M. V., Chin D., DeMarins V (2008). Stressors, anxiety, acculturation and adjustment among international and North American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2, 244-259.
- Geiser, S. & Santlices, V.(2004). *The Role of Advanced Placement and Honors Courses in College Admissions*. Research & Occasional Paper Series: CSHE.4.04.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Hakuta, K. (2011). Educating language minority students and affirming their equal rights: Research and practical perspectives. *Educational Researcher*, 40(4), 163-174.
- Kim, S. (2006). The Ethnic Identity Development of Korean TCKs at TCIS. The Graduate School of Theological Interdisciplinary Studies. 석사

학위논문, Hannam University.

- Koyama, C (2005). *Acculturation Stress and Alcohol Use Among International College Students in a U.S. Community College Setting. Doctoral dissertation.*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 Jaekyung Lee, Namsook Kim, Yin Wu (2018). College Readiness and Engagement Gaps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udents: Re-Envisioning Educational Diversity and Equity for Global Campus.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40.*
- Manz C. C., Sims H. P. (1980). Self-management as a substitute for leadership: A social learning theory perspectiv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5*(3), 361-367.
- Oberg, K. (1960). Cultural shock: Adjustment to new cultural environments. *Practical Anthropology, 7*, 177-182.
- Poyrazli S., Kavanaugh P. R., Baker A., Al-Timimi N(2004). Social Support and Demographic Correlates of Acculturative Stress in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7*, 73-82.
- Poyrazli S. (2002). Relation between assertiveness, academic self-efficacy, and psychosocial adjustment among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3*(5). 632-643.
- Pruitt France J. (1978). The adaptation of African students to American societ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1), 90-118.
- Saavedra, A. R.(2011). *The academic impact of enrollment in the 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s: A case study of Chicago Public Schools.* Santa Monica, CA, USA. RAND.
- Singh PKH. (2010). A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approach to socio-cultural and academic adjustment experiences of international students. *The Journal of the South East Asian Research Centre for Communication and Humanities, 2*, 91-113.
- Super D. E. (198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3), 282–298.

- Straffon, D. A. (2003). Assessing the intercultural sensitivity of high school students attending an international school.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7(4), 487–501.
- Thurber C. A., Walton E. A. (2012). Homesickness and Adjustment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60(5), 415–419
- Tom, P., Norsworthy, B. (1997). *The World of at Your Door*. Minneapolis: Bethany House Publishers.
- Wray D. (2012). Student perceptions of the value of the International Baccalaureate extended essay in preparing for university studies. Retrieved from <http://www.ibo.org/>
- ZAGDAATSEVELMAA (2018).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ZouZhendong (2009). 부산지역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ABSTRACT

The overseas university educational and life experiences
of Jeju Global Education City international school
graduates

Seonji Ko

(Supervised by Professor Min Ho Kim)

Department of Psychotherapy
The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prepared to find out how the life and educational experiences at the Jeju International Schools helped prepare their graduates for adjustment to international universities.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determine what counseling support best prepares current and future students at the Jeju International Schools for life at international universitie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were used amo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 total of eight participants were interviewed. The interviews were recorded in a document format, followed by analysis using observation notes and bibliographic inform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three experiential categories: Overcoming frustration caused by high expectations of achievement, The welcome responsibilities that come with autonomy, The process of finding out what kind of person they want to be.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nd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word: Jeju English Education City, Graduates, International school, International students, College life experience

<부록-1>

연구 참여자 동의서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고선지입니다. 먼저 연구 참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해 국내의 국제학교 또는 외국인학교의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재학 당시의 주된 스트레스 및 심리적 부담 요인, 국제학교/외국인학교 재학 경험이 현재의 대학 생활에 어떠한 심리적 도움을 주는 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구의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위해 수집된 내용은 석사 논문의 자료로서 활용될 예정이며 연구 목적을 제외 한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인터뷰 방식에 따라 녹화 또는 녹음되며 녹화 및 녹음된 자료는 연구 종료 후 즉시 폐기합니다. 참여자의 모든 응답 내용은 익명으로 사용되고 연구 참여자는 연구 참여 중 연구 참여 의사를 철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참여자가 원할 경우 연구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대해 참여자는 언제든지 연구자에게 연구와 관련된 질문 또는 건의를 할 수 있으며 저는 참여자의 모든 의견을 중요하게 다루겠습니다.

이 연구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자: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석사과정 고선지

010-9096-4215

seonjiko1123@gmail.com

이 연구와 관련한 연구 목적, 연구 절차, 연구 방법, 자료 수집 방법, 연구 참여자의 권리 및 연구 중 수집된 자료와 개인 정보 보호 등 연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연구 참여자 서명